

송림(松林) : 바다를 따라 일곱 곳이 있다. 옛부터 땀나무를 금해 왔으며, 신라 도선(道詵)이 바다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자 하여 소나무를 심도록 하였다.



도선(道詵) : 신라 승려, 그의 음양지리설, 물 수장지법은 고려, 조선을 통하여 우리민족의 가치관에 큰 영향을 주었다.

영동은 땅이 척박하고 파도가 밤낮으로 켜 밧과 쌓이 농괴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쓰게 되었다.



초도(草島) : 화진포 동쪽쪽에 있는 바위섬. 아래쪽에 있는 큰바위의 갈라진 사이로



파도를 삼켰다 모하는 소리가 종을 치는 소리와 같다. 섬 위에는 살대(節竹)가 자란다.



전공품(進貢品)

물	전골어	전홍합	백복령	매(일본에 기증품)
밀남	전저(돼지고기)	말린전복	백피(황백나무)	황각금
배주	백자(젓)	영지	목통(으름덜굴)	말안장
배밀알	생이(배)	오미자	서각(매미)	미역
초발주지(종이)	전장(노루고기)	홍화	천남성	백화사(뱀)
보통주지(종이)	전연어	인삼	자유	백작약
글포(글고기포)	전대국어	우황	바닷말	산돼지 털

해진(海津) : 어촌에 배가 정박할 수 있는 곳
전진(천진), 제진(제암), 자포진(자전)
거란진(거전), 대국미정(대진), 저도진(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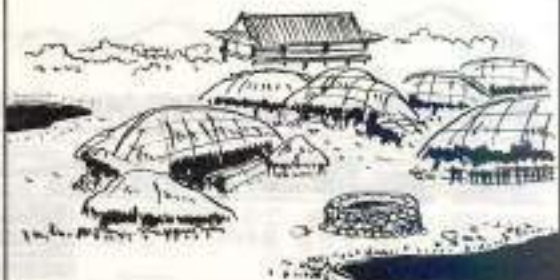
선보소(鮮補所) : 한곳은 군청 서북쪽 모퉁이에 있고 다른 한곳은 서동밖에 있다. 도선이 항해 곳으로 백보(焙補)상역에 있는데 지금도 왜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땀나무와 밧목을 금하고 있다.



성지(城址) : 금성 석축의 둘레가 240보(436m)이고, 높이는 15척(4.55m)이다.



1591년에 다시 건축하여 서문과 동문을 두었다. 성안에는 우물 3개와 못 4개가 있는데 못의 수면은 넓었다.



무송대(茂松臺) : 옛 이름은 송도. 무송 부원군 윤자원이 이곳에 왔다가 대(臺)를 짓고 무송대라고 이름을 바꾸었다.



목장(牧場) : 사육사(司牧司) - 말 기르는 일을 맡아보는 관아]의 왕실 연대는 알 수 없으나, 봉암마 2말을 음력 8월에 받아왔다가 4월에 상납하였다.



장시(場市) : 도보결상(徒步京商)들이 의복, 잡물 등을 길가에 벌려놓고 팔며



끌고가는 어항내에서 서로 무역하고, 음식은 마을 안에서 때때한다.



봉수(烽燧) : 금도, 정양산, 수산 3곳에 있다. 임오반정 이후 일본과의 경계를 개척하고 봉수와 수를 늘려 협수 하였다.



전부령(陳富嶺) : 금 서쪽 50리, 1632년 판에서 모진한 역승들이 처음으로 개통한 고개. 물이 적어 수행의간 용이한 편이나 겨울에 눈이 많다.



해면(堤堰) : 제방 3곳

1. 근내면(간성) 뚝자 제방 (근 서쪽 1리)
- 길이 210척, 높이 3척 9촌
2. 근내 남 10리 다사 제방
- 주위 50척, 길이 15척, 높이 5척
3. 대대면 뚝자 제방(근 북쪽 5리)
- 주위 2096척, 길이 488척, 높이 3척

호구(戶口) : 호수와 인구수, 1603년 선조 36)
2,481호, 8,949명(남 4,013명, 여 4,536명)



관직(官職)

군수	1(종 4품)	지연	20
좌수	1	사령	20
별감	2	관노	21
대동감관	1	관비	8
군관	30	교노	12
아경	40	교비	19

군역(軍額 : 군인수)

유정군 有廳軍	15	양군관 良軍官	30
어영군 御營軍	138	원숙오영아병 元束伍營牙兵	465
포수 砲手	167	악생호 樂生戶	14

방리(坊里)

근내면	해성면	대대면	오현면
11개리	17개리	8개리	17개리
현내면	왕곡면	죽도면	토성면
16개리	7개리	12개리	22개리

물 산(物産)

土産 : 지황, 하수오, 복령, 팔복, 당귀, 승마, 택사, 목방지, 백화사, 측천, 칠, 옹이, 좌, 홍합,
대구, 연어, 방어, 은구어, 황어, 광어, 고드러, 마어, 배삼, 접어, 대합, 숭
魚鹽 : 문어, 대구어, 농어, 연어, 황어, 광어, 은구어, 은어, 전복, 홍합, 배삼, 전어, 대구어란,
대구어젓, 대구어젓배, 연어식혜, 홍합식혜, 고도어복장, 조라, 문라, 생이
藥材 : 인삼, 당귀, 오미자, 독활, 단청자, 지실, 팔경, 천각, 석호, 목통, 고추인, 열교, 작목령,
백목령, 백악마, 백전두, 하수오, 감황, 천궁, 오향, 갈화, 목단피, 천장, 인진, 배피, 천바,
금은화, 마황, 천궁, 산약, 복신, 칠경, 황백, 공안, 갈, 들기름, 밭쌀 등

그래서 관내에는 무당이 많다. 온갖에 복속이 더욱 저속하고 일반하게 되어 자주 말에 탄다는 것도 무당들 때문이다.



이생, 사대부, 서민은 다소 상례를 즐기 여기 는데 민중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극상이 행해지는 기에는 학살한 상인(商人)이라도 감히 집에 들어가 침식을 하지 못한다.



서민이 병이 중하게 되면 집밖으로 옮겨놓고 관자 지 역전에 따른다. 그 예절이 많아 몸에 사는 사람 들은 무잡한 풍습을 버리고 있다.



예로부터 이곳에서는 문과나 무과에 오른 사람이 없다. 일장년 이후 처음으로 무과에 오른 사람이 나왔다.



이번에는 토학안이 문과 진사가 되었다.



어부들의 특색인 황피와 가난은 어부들이 어리 석고, 폐도의 완고함 때문이다.



바닷가 어항의 장사마치는 팔도에서 모여든 간 사한 소인배의 제 모임인 고로 속임수가 많고



소송을 좋아하는 것들이어서 교화하기도 어렵다.



로자 전복상 : 복고의 상을 당하여 여막에서 죽과 다과만을 먹고 3년간 한번도 집에 오지 않았다. 관에서 이를 알고 정문을 세웠다



표너 석물너 : 양민 김석봉의 딸로 시집 가지자며 화적의 습격을 받았다. 그 가족이 살해되고 복음음을 당한 후 슬프신 아버지를 시루로 넣고 감추며 생명을 지키게 하였다.



열녀 정씨 : 유학 윤태백의 처로 남편이 사망하자 장례도 치르지 않고 남편의 빈소 옆에서 자절하였다.



열녀 함씨 : 무학도 이만기의 처로 남편이 사망하자 남편 빈소 옆에서 자절하였다.



문과 : 이지정(교리-홍무관 정5품, 형 안개현감, 을진현감), 어진장(향인진사), 박환장(진사)



무과 : 이지환, 함태현, 함이신, 윤지성, 옥천의, 함태영, 함희정, 이범, 이복영, 최승인, 최영, 윤미량, 함복환, 최대성, 장미환



음서 : 윤승진, 최용관, 김사만, 이석우, 김현구, 이복영 등이 과거에 합격하여 주서가 되었고,



김병영은 선공감(토목건축) 일에 종사하였다.



1579년에는 사간 윤백원이 1623년에는 응교 임성지가 유배되어 왔다.



이성과 같이 '수성지(간성군읍지)'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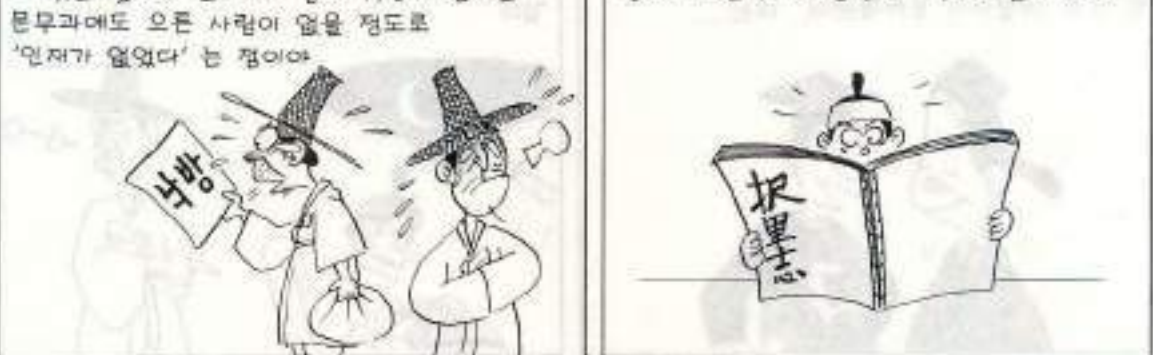
그런데 여기서 특기할 만한 사항을 찾아 볼 수 있었는데



그것은 앞에서 본 비와 같이 17C 이전에는 문무과에도 오른 사람이 없을 정도로 '민자가 열었다'는 점이다



영조 때 실학자 이증환의 '택리지'를 보아도



'영동의 아홉 고을' 사람들은 놀이하는 것을 좋아한다. 노민들은 기악과 술, 고기를 살고



호수와 산 사이에서 흥겹게 놀며, 이것을 큰 일로 여긴다.



그러므로 그들의 자제들도 놀이하는 것이
바람이 되어 학문에 힘쓰는 자가 적다.



지역이 서울과 멀어져 예로부터 훌륭한 사람
이 적다. 다만 함흥에는 과거에 오를 사람이 적었
나왔다'고 소개하며



또 강릉 12명중 9명의 한 사람인 박수당
(1475~1546)의 생애와 대외 내용을 보면...

언제가 영동 명산 아래에서
나와야 할 터인데, 어찌하여
멀리 영남에서만 나오는지요?



꽃이 즐기와 푸리에서는 피지 않고
가지 끝에서 피는 것과 같습니다.
영남에서는 예로부터 인재를 양성하여 왔으나
영동에서는 인재를 배양하여
오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처럼 우리고장을 비롯한 영동지방에서는 인재
를 크게 배출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인재 양성에 인색한 것이 큰 요인이었던 것
같아



정묘(1627) 및 병자호란(1636)을 우리고장
은 피해 갈 수 없었으나



사명당의 제자인 허태낭(1593~1661)은 금강산
을 비롯하여 전국과 승병 4천여 명을 거느리고



팔도 승의병대장이 되어 안주 전투에 참전(정묘호란)하였고



병자호란 때에는 수백 섬의 군량미를 조달하는 등 큰 공을 세웠어



1651(요종 2). 11. 진 영의정이었던 어경석이 고성당정에 목욕을 오자



고성주민 90여 명이 모여들어 포음(浦欠), 적곡 등의 폐탄어 대한 글을 명금개 전달하여 줄 것을 요구하니



어경석은 이 모두를 상소하여 시정하게 하였어



현종 4(1563. 12. 26) 고성에서는 어선 21척이 바다에 나가 갑자기 광풍을 만나 15척이 침몰하고 47명이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거



1669. 8월에는 간성에서는 13명이 굶어 죽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어



숙종 11(1685. 7) 간성 어부의 아내인 박 개기 남에게 질렸갔다 돌아와



스스로 목매어 죽자 나라에서는 그의 뜻과 절개를 높이 여겨 포상 및 장례를 하였어



신 무(愼愚)

호 : 탈호(脫湖)

고성 사람



신무는 왕에게 '보민편'이라는 책을 지어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아



덕을 쌓은 자는 사람들의 본뜻을 알게 되고, 인재를 얻은 자는 민중의 본뜻을 보호하게 된다



그러므로 먼저 군덕을 말하고 다음에 인재론 말하고, 그 다음에 보민을 말하여야 한다.



君德
人材
保民

모든 일은 민중의 마음을 기쁘게 함에 달려있다. 민중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그 다음에는 크게 하고 싶으면 크게 할 수 있고, 작게 하고 싶으면 작게 할 수 있어 할 수 없는 바가 없게 된다



신무의 책물 돈 임금은 그 내용물 가성이 어거



항상 그 책을 손소 치니고 보았으며



선무에게 판직을 제수 하도록 하나



선무는 판직을 사양하고 초야에 묻혀 글읽기
에만 전념하였어



태낭 이식 선생이 소금 몇날에 태어나 선무 선생
을 보았다면 무어라 기록하였을까.....



1698. 2 고성에서는 굴주리 형제가 서로를 잡아
먹고 일시에 굴주리 죽는 끔찍한 일이 발생하자



나라에서는 군수 남택하의 죄를 추궁 하였어



이 남택하 군수의 아들 남도발은 전국 유명산천
물 떠도는 풍류객이었는데

남도발

남도발은 고성 앞 바다에서 바다금강을 발견하
고 '해금강'이란 이름을 지은 창본민이여



1708. 9 고성의 유학 권경항이 국사에
관한 상소를 올리자



상 소 문

1. 閑防(관방)을 본분하게 하여 가해(외오)를 방어하고
2. 砲堡(포보)를 철폐하여 民隱(민원)을 극동하고
3. 口稅(구세)를 收條(수부)하여 극중을 폐타하고
4. 浮屠(불화)한 詞訟(사상)을 변정시켜 誣誣(오정)하는 습관
을 止息(지식)하고
5. 場屋(장옥)을 철폐하여 行賄(과거)의 규율을 엄중히 하고
6. 詞訟(구세)를 독어서 민생을 양생하는 방법을 제우고
7. 軍情을 정돈하고 전화를 만들어서 陰雨(음우)를 대비하고
8. 고성 유림사의 영조, 원종 양묘의 역사를 철폐하소서

숙종 임금의 우약(優弱 : 임금의 은혜가 넓고 두터움)스러운 비답을 주면서도



유점사의 일은 실패지 않았다고 해



1709. 1 고성에서 함경도 경계까지의 바닷물이
열렸는데 그 너비가 50리 가량이나 되었어



또, 그 해 여름 6월에는 간성 바다가 열었고
너비는 10여 말 정도이고 숨이처럼 두꺼웠어



'금강전도'로 유명한 진경선수가 겸재 정선
(謙齋 鄭敎) [1676~1759]



정선 [鄭敎]

호 : 겸재·난곡
저서 :
(모실정씨)
작품 :
(임암도)
(여산초당도)

금강산의 빼어난 절승 경계를 송강 정철이
한글 가사도 '관동별곡'을 지어 지금에 잘 복소리로 읊었
다면



경재는 천하제일 금강산의 아름다운 산과 바다의 경치를



사생시각으로 진경화풍으로 화폭에 이어 담아 내었어



진경화(眞景畵)란 실재의 경치를 그대로 그린 그림이거



경재는 금강산의 명소들을 포착, 그곳들 중심으로 확대하여 그리는 배치법을 즐겨 활용하였어



‘금강내산출도’를 비롯하여 만폭동·비로봉·해산정·칠성암·해금강·삼일포·용천·문암관일출도 등 수많은 그림이 많은데



여기서는 잠시 청간정도에 대하여 이야기 해볼까 해



진경시대를 여궈 가는 쌍두마차 정선(그림)과 이병연(시)은 이 문화의 주역이었어



순임 이병연 진성군수(1731~1733)는 이병연의 동생이야



풍광롭게도 이 세사상은 동해안으로 비슷한 시기에 삼척부사(이병연, 1732), 청하현감(정선, 1733, 영월)으로 부임해 모게되



어때 청하현감으로 부임되어 가는 정선에게 간성군수 이병연이 축하시를 보내네



검재는 이 죽시에 대한 답례라도 하듯 청간정도를 그려는데



청간정의 모습이 지금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



영조 18(1742. 10) 고성군수 이하귀와 다스림이 강직하고 밝으니 여전들이 도리어 원망하여



관비 등과 더불어 음식물에 독약을 쓰게하여 군수가 중독되어 죽자



조정에서는 여사를 파견하여 가담자 매성 최린 박용문, 관비 행진 매단, 장교 장우순 등을



가려내어 그 자리에서 처형하고 1743. 2.13 고성군의 음모를 강등하여 현으로 삼게하였어



1759년(영조 35)에 조사된 고성·간성의 호구표

고 성 군					간 성 군				
면별	호수	계	남	여	면별	호수	계	남	여
7	1999	6898	3850	3048	8	2133	11031	3401	7630
군내	454	1507	880	627	군내	267	1301	403	898
일북	346	1173	618	555	해상	204	1137	427	710
서면	186	567	364	203	대대	151	582	186	396
남면	178	809	408	401	오현	207	1389	391	1008
이북	292	1150	607	543	연내	355	1607	513	1094
안창	325	909	484	425	경곡	177	1029	341	688
수동	218	783	489	294	죽도	284	1704	443	1261
-	-	-	-	-	도성	488	2282	707	1575

1766, 4 전 이조참의 심여지가 고성으로 귀양을 왔으며



정조 11(1787, 5) 서유필이 간성군의 삼패의 폐단을 건의하여 서정하였고



1788, 8 정소는 영성소와 아필을 봉안한 전봉사에 대하여 세금을 당감해 주었어



1795, 6 고성군수 이성보는 상도(常道)에 어긋난 왕의 거조(庫朝)와 관련하여 상소문을 올리고



군수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자



거조(庫朝) : 온 조정의 모든 벼슬아치

영금은 그의 뜻을 가늠히 여겨 고성군수직으로 되돌아가 일할 것을 원하였으나



선비의 '외'와 '애'를 중히 여기는 그의 성품을 알고서는 그를 재차하였어



세차(訛差) : 왕소 때, 관리들 길아내어 바꾼

1804년, 잦은 흉년과 정치적 폐단으로
간성에 유민이 많아 발생하자



강원도 관찰사 서유방은 간성의 유민실태를 면밀히
조사한



'간성유민환첩타민이정성책'(1797)을 지어
임금에게 올렸고



1799, 관찰사 남균철의 조사에 의하면 다른 지방에
서 떠돌다가 다시 돌아와 사는 민가만 무려 580호나
되었다고 해



1798년 고성의 유학 노제형과 권현이 농서를 지
어 임금에게 올렸는데



그 내용은 토지의 개간과 경작에 관한
것이었어



1799. 1. 11. 간성 해부 11명과 선전군 77명
이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 한개밖에 침몰하여 시
망하였고



1800. 3. 간성에 산물이 발생하여 민가 수백
호가 불에 탔으며 이때 고백전(광포호)에서만
69호가 연소되었어



1804, 3, 고성 간성을 비롯한 영동 여섯고을의 민가 2,600여 오와 절 6곳 등이 불에 타는 대형산불 발생



여나 지금이나 그놈의 불, 불, 불.....
'불조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또 1815, 2, 20-22, 눈비가 섞인 폭풍이 휘몰아쳐 간성의 각 나루에 정박 중이던 북판의 수많은 실고 온 배 43척이



침몰 파괴되면서 역사자 20명과 2만여 톤의 곡물을 잃어 버리는 일이 발생하였고



같은 해 12, 10-11, 바람과 눈으로 간성 등 다섯 고을의 배 254척이 파괴, 손상되었으며



많은 뱃가도 유실 파괴되면서 역사한 사람도 40여 명이나 발생하였어



1819, 1(순조 19) 고성군수로 도입한 윤평렬은 재임기간(-1823, 12) 동안



고성의 문화유적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많은 영물하였어



1819 고성 앞바다에 고래 한 마리가 떠밀려
오자 이를 팔아 사선정을 중수하였고



그 후 봉천암, 관음전, 유선각, 함정루 등을 중
장 또는 새로 지었으며



사선정 및 함정루..... 등에는 최립의 사선정
시(四仙亭詩) 등과



추사 김정희 등 당대 명필을 동원하여 삼일포 일
대 절충을 명시와 명필로 도포하는가 하면



김홍도, 유한규와 함께 삼일포지도 편찬.....



하어튼, 윤광렬은 임기 내내 여러모로 자신의
열성을 쏟아 부었어



1860(철종 11) 윤 3, 17 간성군에 산불
이 발생하여 486호가 불에 탔으며



3일 후, 고성에서도 산불이 발생 85호가 불에 탔어,
금화재(金火災)라도 지내야 하지 않을까?



1861(고종 28) 1. 30 고성에서 중 기벌이 반일원, 장승조와 더불어 평민을 학대하고 토색질을 일삼다



권원 등 분개한 주민들이 그들을 잡아다가 생매장하고 그들의 집을 파괴한 일이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을 '고성민란'이라고 부르고 있어



1895년 8도제가 폐지되면서 강원도는 2부 22군으로 편성되고 이때 간성과 고성은 강릉부로 속하게 되



어듬 해인 1896년 전국이 13도제로 다시 개편되 고성과 간성은 강원도로 속하게 되면서, 이때 존칭이 강원도의 수부가 되



1895년 명성황후 시해사건과 단발령에 반격한 유생들이 친일내각 및 일본 타도를 외치며 전국에 항일의병이 활동이 전개될 때



고성에서도 권원원 등이 의병을 일으켜 활동이 있으며, 강릉 민중오의 관동의병은 고성에서



일본군 200명과 접전 끝에 97명을 사상시키는 대승을 거두었는데 이를 '고성승첩'이라고 해



준천의 성역현 의병부대는 고성으로 들어와 용종현 군수를 처단하고



건봉사에 수군 후 관군하고 대적전을 벌였어



이렇게 어렵고 어지러운 시기에
누군가에 의하여 '고성읍지'가 태어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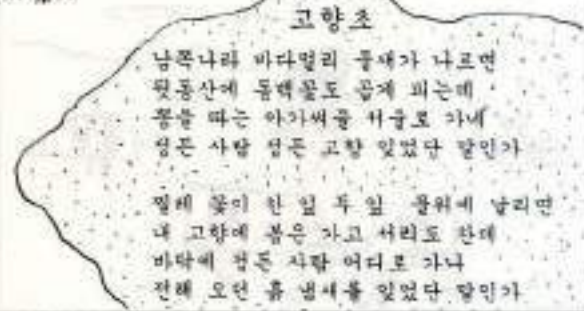
1906 건봉사에서는 금영 이교재에 의하여 영동지방 최초의 신학문 학교인 봉명학교를 설립



물리, 화학, 영어 등 신학문을 가르치고
일본유학도 지원 하였어



또 국채보상운동에도 동참하였는가 하면 전 통국대 중
장 정두석 및 고향초로 유명한 조병암 등 많은 인물을
배출하였어



1907(음의 1) 고종의 강제위와 군대해산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의병이 일어나자



고성에서도 주광석, 김배룡 등이 의병을 일으켜
항일활동을 벌였어



간성 불임리 출신 수평선은 의병 100여 명을 이끌고 간성, 양양, 고성, 강릉에서 활동하였고



고성주민 김택홍은 의병 70여 명을 이끌고 회양, 고성 등에서 활동하였다



물미·정미 양 의병 활동을 하였던 권형원은 1907. 9. 17 남강전투에서 패한 후 총살 되었으며



1907. 10. 20 고성출신 권석근(23세)과 이택근(22세)은 음내 일본군 동정을 정탐하다 발각되어 11. 4 장전에서 총살 되었어



1910. 8. 29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한일합방에 어루어진 후



일제는 1914. 3. 1 행정구역 개편시 고성군을 간성군에 병합하고



1919. 5. 15 간성군을 고성군으로 개칭하면서 죽왕과 토성을 양양군에 넘겨 주었어



일본 식민지 지배하에 있던 우리 민족이 1919. 3. 1을 기하여 범민족 항일독립운동을 펼칠 때



선북면 개령리 정년 김동원은 독립선언문을
입수하여 3. 14 고성과 간성 거리에 배포하였
고



3. 17 간성보통학교 정교생 150명은 운동장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고 시장으로 나아가려다 교문
에서 일경에 의해 제지 당하였으며



3. 27 간성, 거진, 현내 등에서 마을단위로 선
위에서 만세를 외쳤다



4. 5 민심수습을 위하여 교양정터를 방문한 간성
군수가 주민들에게 봉변을 당하자 일제는 관내시
장을 모두 폐쇄하게 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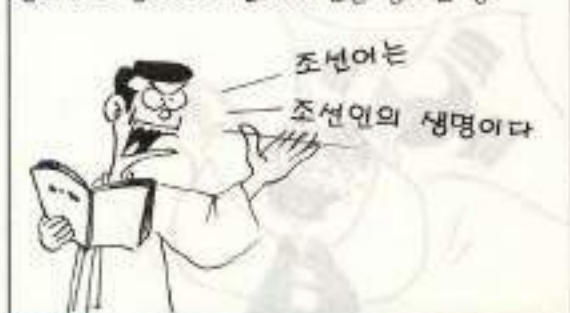
3. 1 운동이 있은 후에도 현내면 출신
이재오와 정남용은 대동단원으로 활동하
였고



고성보통학교에서는 일본인 교사들이 한국인을 때리하
자 동맹휴학을 펼쳐 일본인 교사를 배척하였는가 하면



고성출신 정성환은 1938년 고성남광림소학교
교사로 재직시 '조선어는 조선인의 생명이다'를
강조하며 염의로 조선어 시간을 늘리는 등



일제의 침략과 탄압에 고성주민들은 조금도
굴함이 없어 대항하며 많은 활동을 펼쳤다



이 밑에 강정기를 전후로 우리 사회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어



1902, 간성의 백정촌에서 사람이 죽자
어긋 마을 상포계에 상어를 벌리러 간 한 백정이
문전박대를 받고 돌아오게 되



이제 화가 난 백정들은 간성군수를 찾아가 동성으로
변했고, 이 동성 정에서 쫓겨나게 되자 백정들은
각출하여



○ 백정

일반 천민들은 벼와 파와 상인으로 신복
삼승을 할 수 있었으나 백정의 신복은 그
급을 벗어 날 수 없었다.
근이 많아도 비단옷은 물론 목부마기도
입을 수 없었고 할모자도 금지되었다.
모자는 파랭이만 쓸 수 있었으나 상민과
구별하도록 갓끈은 짙은 짙은 새끼줄을
썼다.
혼인, 남매도 밭과 가마를 할 수 없이 소
와 넓적지를 리아만 했고 죽어 자 세상으로
로 가면서도 상여를 할 수 없었다. 상여
역시 상복, 방앗, 상잠(지팡이)도 착용
할 수 없었다.

성민들의 상어보다 몇 급절 오화스러운 상어를
귀대 종곡을 하며 읍내를 통과하는 형외식 장례
치른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천년을 천대받아 온 자선들의 만 맺힌
치에 대한 저형이자 계급타파를 열망하였던
행동이었어



또 여러 종교가 들어와 포교활동을 펼치면
서 우리 교장과 많은 관계를 맺는데



우선 천도교의 전신인 동학의 제2대 교주 최시형과
의 연인으로 간성 필목장사 박춘서는 경전원고를 펴
자해 주고



1889. 최시형은 간성 왕곡마을 김하도의 집에서 수개월간 은거하면서 포교활동을 하였으며



1894. 9 강릉전투에서 패한 동학혁명군이 왕곡마을 함일손의 집에 머물면서 체제를 정비하였는가 하면



1895년에는 3·1운동 대표의 한 사람인 손병희가 간성 일곡리를 다녀가는 등 동학과의 관계도 깊었던 고장이다



1901. 7. 17 세워진 대한감리교 간성교회는 강원도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교회로



1943. 일제의 8. 15 해방 이후에는 공산 치하에서 폐쇄되었으나 1951. 3. 1 재건하여 오늘에 이르고



간성천주교회는 이 보다 늦게 1958. 8. 14 열정리 드신부가 부임하면서 간성 하리에 170평 규모의 본당을 설립하였어



1911. 6 조선총독부에서 사찰령을 제정·공포하면서 유점사와 건봉사가 강원도 일대 사찰들의 본산이 되고



유점사는 60개, 건봉사는 27개의 딸사를 갖게 되



이 시기에 '조선유선물교본'은 저술하여 출간한 '님의 침묵'의 시인 한용운은 1928년 건봉사에 머물면서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말과 같은 것입니다.

푸른 산빛과 푸른 바다를 보며

난 작은 고향을 그리워하며 울고 있습니다.

푸른의 고향의 옛 명사는 저지란

타일이 되어 새장에 붙어 있습니다.



어디런 주지의 권유로 '건봉사금건봉사말사사적'을 집필하였어



교육에 있어서는 신학문 학교로 최초 건봉사에 사립 봉명학교(1906)가 설립되었어



1910. 6. 13 건성공립보통학교가 개교하고 뒤를 이어 오호('24), 천진·대전('25), 거진('29)순으로 세워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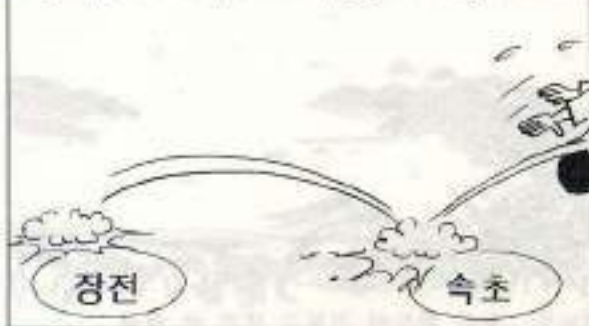
장전에는 강원도에서 세 번째로 중등학교유기관연 금강공립중학교(1941)가 세워지고



장전형수산교습소가 설립 운영되고 있었는데



금강공립중학교의 설립으로 수산교습소는 속초로 이전하였다가 그 후 다시 주문진으로 이전



지금의 강원도립대학(주문진수산고등학교)의 모체가 되었어



1912. 일제는 외금강에서 중석광을 비롯한 각종 광석과 목재를 남벌해 가더니



전정수해물자 및 양양의 자철광 운송을 위하여 원산에서 영양까지 철도를 연결(1937. 12. 1)해



이 선로를 동해북부선이라 하며 원산→강성간은 1935년에 개통되었어



이 선로가 있기 전인 1926년, 조선철도국 직원들에 의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온정리스키장이 만들어 지고



30년대에는 온정리 스키구락부가 탄생할 정도로 스키열기는 대단 하였고



이후 70년대 진부령스키장을 거쳐 오늘날의 알프스 스키장으로 그 맥을 이어오고 있어



일정기 고성와 주요산악은 금강산 관방산업과 수산업이었는데



수산업에 대하여 잠시 살펴보면 장전항은 고랑노도(高浪怒濤)에도 능히 견디어내는 천연항으로서



고랑노도 : 높은 파도와 거칠고 세찬 큰 물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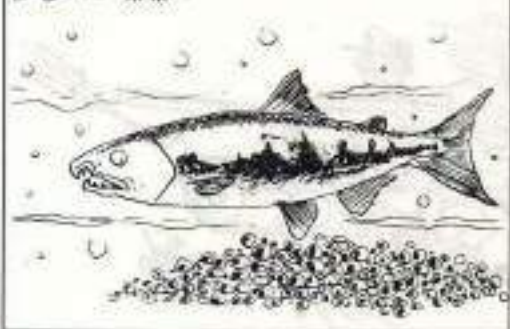
고래시늉과 더불어 어쩔고에 있어 한국과 일본의
5대 항구도시로 손꼽힐 정도로 유명세를 떨쳤어



또 일본인 상당수의 어부가 우리 고향으로
어주해 왔는가 하면



내수면에서는 남강에 연어부화장이 설치
운영되고 있었어



1933년 통계

일본인				조선인			
호수	계	남	여	호수	계	남	여
444	1,604	820	784	11,431	62,102	32,869	29,232
농업 경지면적 : 4,609경보 경업농 : 5798호							
축산 소 5,212, 면양 106, 한양 19							
업 돼지 4,972, 닭 8,661, 모찌 86							

병자년 포박(1936. 8)에는 고성읍내에서만
13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있었어



조선중앙일보(1936. 9. 3) 기사내용



일제강점기 말,



정유, 정병, 정발, 창씨개명 등의 온갖 수탈과 탄압에
시달리다



드디어 1945. 8. 15 일제 36년 간의 식민지생활 질곡에서 해방을 맞이하니



기쁨도 잠시..... 국토는 두 동강이 나면서



38° 선 이북에 위치한 우리 고성은 공산치하에 들어가고



1950. 6. 25 한국전쟁의 발발로



은 나라는 전쟁터로 변하면서



현재강에 죽어고 죽이는 전쟁은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는 대참사를 낳으면서
1953. 7. 27 휴전협정으로 일단 끝났으나



이로 인해 고성온 남과 북으로 또 다시 나누어지게 되



1954. 11. 17 수복지구 행정권 이양으로 간성, 거진, 현내, 수동이 고성의 관할로 들어옴



1963. 1. 1 트성과 죽왕이 다시 고성으로 편입되나



36년 간 일제와 수탈 그리고 뒤이은 전쟁이 없고 간 상하는 길고 길어 아물지 않고



온 천지가 잿더미가 된 때 허 위에서 정망과 꿈은 없는 전쟁의 공포에 떨며



주민 배를 움켜쥐며 희망 없이 살아가야 했어



해군 56함 피격(1967. 1. 19)



1968년 해안
마차진 주민들의 사진리(현, 속초 장사동) 이주



KAL기 납북 중 현내면 조도리 비상착륙
(1971. 1. 23)



1973. 7. 1 거점면 → 거점읍 승격
[포성면 사진리, 장전리 → 속초시로 편입]
1979. 5. 1 간성면 → 간성읍으로 승격



70년대의 새마을 운동



보세!



지방화 시대의 개막



고성상륙





역사를 알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이 나와

우리는 지난 이야기를 살펴봄으로써 이 땅의 선조들이 어떻게 살아 왔음을 알게되고 또 이것을 거울삼아 다음 세대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가 있어



한 지방의 문화수준은 「그 지방의 역사와 화를 발굴 정리한 서적이 얼마만큼 풍부하게 간직되었는가」로 중요한 척도로 삼아



우리에게는 수성지, 삼일포지, 건봉사지, 고성읍지, 유점사지 이외 수많은 금강산 관련 서적들이 이를 잘 대변해 주고 있으니



반면, 이 땅의 주민들은 전하제일명신 금강산이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 명성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별로 귀패하지 않은 속담을 남겼어



각종 조세, 공물, 부역 외에도 수많은 찾아오는 관료, 외국사신, 영빈들의 길안내, 짐운반, 음식제공 등 워치다꺼리에 시달리다 보니



금강산은 한반도 양반들의 전유물이 되었고
생업의 터전인 두 남을 가로막고 서있는 바위
덩어리여 불과하였던 것이다



지금의 21세기



오대륙 중에서 가장 큰 바다인 태평양과
가장 큰 대륙인 아시아가 만나는 지점에 백두대간
이 남북으로 이어지고



그 중심부에
하늘 아래 가장 아름다운 산과
가장 아름다운 바다가 있는 땅..... 고성



여기 고성은 옛 고구려 사람들이 지어준 이름 달음
의 뜻을 알고 그 이름 값을 할 때이다.

달음 = 고성 = 높은 고을
[達悠]. [高城] [으뜸 고을]

達 : 산(山), 높다(高=高乙), 땅(地)
悠 : 성(城), 읍(邑, 고을), 촌(村, 마을)

높은 고을(으뜸고을)?
그 해답을 찾으려면 먼저 간성의 이름을
살펴보기로 해



杆
城

간성은 13C 몽고의 침략 시 고려 조정이 강화
도로 옮겨 가 40년 간 대몽항쟁을 벌였던 것
같



안변도호부가 40년 간 옮겨 와 있었던 곳으로
유사 이래 지금까지 군사적 요충지였어

작전상 후퇴....



문래의 이름은 수성(瑞城, 守城)이며, 고성과 간성이 최초 통일하던 고려 때에 와서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었으나 그 연유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

수성



간성



간성의 '간'자를 일상 사용하는 낱말 중에서 찾아보면..... 그 쓰임은 아주 적으나 아래와 같은 낱말이 있어

- 공간(槓杆) : 지렛대
- 간봉(杆棒) : 막대기, 몽둥이
- 조종간(操縱杆) : 비행기나 토목 기계 따위를 조종하는 막대기 모양의 장치

어처럼 '간'자는 지렛대와 같이 어떤 물체에 작은 힘을 가하여 큰 효과를 얻어 낼 때 쓰이는 과학자임을 알 수 있어



천년 전 고려인들이 비록 정도에 태어날 것을 염원하며 천년 향을 이 땅에 묻은 것(대향)처럼



천년 후, 고성이 으뜸고을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간성의 역량이 있어야 함을 지명으로 예지 하였는지도 몰라



배두대간 등줄기에서 북으로 뻗은 함로봉산맥이 고성을 향하여 지렛대 모양으로 뻗은 것과는 무연일까?



문단 50년

어 무 이 - - -



만세기동안 끝까지 막으면 남북의 폭도가 고성에서 '뽕' 뽕였다.



이제 우리는 고성과 간성이 다시 합치는 날을 맞이할 때가 왔다.



자- 그 날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할까?



'가장 고성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한다. 가장 고성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다.



문화(文化)

세월과 무관심 속에 묻힌 우리 고장의 역사와 문화유산, 인물을 찾아 달려야 한다.



역사(歷史)

그리고 이를 본보기로 하여 이 시대에 걸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발굴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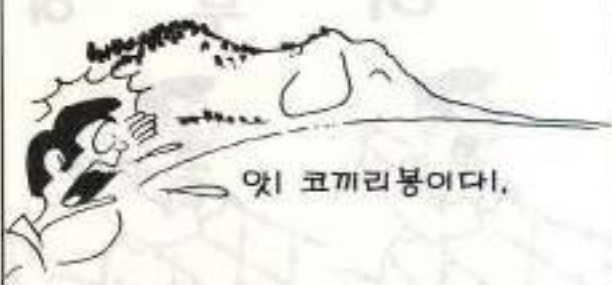
인재(人材)

구태와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사고와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신사고(新思考)

그럼 170만 남도발에 해금강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금강(新金剛)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앗! 코끼리봉이다.

우리 겨레가 가장 좋아하는 숫자 3

고성과 간성이 삼 세 만의..... 세 번째 통합하는 날

이 날은 온 겨레가 하나 되는 날이자, 고성이 으뜸고을로 발돋움 하는 날이다.



통 일 을 이 루 자 !



어떻게 하면 우리 2000만 동포의
귀에 애국이란 말이 생생하게 울려 퍼지게 할 것인가?
오직 역사로 할 뿐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 2000만 동포의
눈에 국(國)이란 글자가 매회하게 할 것인가?
오직 역사로 할 뿐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 2000만 동포의
손이 항상 나라를 위해 뭉사게 할 것인가?
오직 역사로 할 뿐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 2000만 동포의
발이 항상 나라를 위해 뛰게 할 것인가?
오직 역사로 할 뿐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 2000만 동포의
목구멍이 항상 나라를 찬양하게 할 것인가?
오직 역사로 할 뿐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 2000만 동포의
머리털이 항상 나라를 위하여 뜨겁게 솟구치게 할 것인가?
오직 역사로 할 뿐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 2000만 동포의
혈혈누누(血血淚淚)가 나라를 위하여 솟구치게 할 것인가?
오직 역사로 할 뿐이다.

대저 역사가 무엇이기애 그 공효(功效)의 신성함이 이와 같은가.
역사라는 것은 그 나라 국민의 변천소장(變天所藏)한 실적이니
역사가 있으면 그 나라가 반드시 흥기하리라

(신채호, 「역사와 애국심의 관계」 중에서)

고성관련 고서비교

새 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고성읍지 간성읍지		비 고
● 산(山)						
막지라산 莫只羅山	서화 42리, 양양 40리, 안창 48리	마기라산 麻耆羅山	간성 서 30리	마기라산 麻耆羅山	간성 서 30리	항로봉, 간성의 진산(鎭山), 기우제
		남산 南山	간성 남 5리	남산 南山	간성 남 5리	금수리 고성산
		금강산 金剛山	간성 서 20리	금강산 金剛山	간성 서북20리	
		천후산 天吼山	간성 남 70리	천후산 天吼山	간성 남 70리	신선봉
		오음산 五音山	간성 남 15리	오음산 五音山	간성 남 10리	죽왕면 오봉리 기우제
		고성산 固城山	열산 북 1리	고성산 固城山	열산 북 1리	현내면 산학리 열산의 진산
		어구산 於丘山	열산 서 4리	어구산 於丘山	열산 서 4리	일명 : 只山, 鼻的只山 現, 노인산
				국동산 國東山	마기라산 의 서쪽	양구와의 경계
				정산 鼎山	간성 남 30리	마기라산의 남쪽 지맥
				국사당산 國祀堂山	간성 남 50리	現 국사봉
전성산 全城山	열산현 33리, 동천 22리	전성산 全城山	고성 서 9리	전성산 全城山	고성 서 9리	고성의 진산(鎭山)
				탄둔산 炭屯山	고성 남 60리 수동면	黃腸山 : 王의 관을 만드는 품위가 좋은 소나무가 많다

세종실록지리지		산증동국여지승람		고성읍지 간성읍지		비 고
		포구산 浦口山	고성 동 9리	포구산 浦口山	고성 동 5리	高城浦
		금강산 金剛山	고성 서 58리	금강산 金剛山	고성 서남60리	비로봉
				이륜산 峴崙山	고성 남 10리	현, 월미산
				월미산 月飛山	고성 서북 7리	삼일포 국지봉
				칠성봉 七聖峰	고성 동 10리	

● 고계(嶺)

소읍파령 所邑破嶺	간성의 要害 남 42리 97보	소파령 所坡嶺	간성 서 59리	소파령 所坡嶺	간성 남 60리	대간령 (일명: 石坡嶺, 院基嶺)
		미시파령 彌時坡嶺	간성 서남80리	미시파령 彌時坡嶺	간성 남 80리	미시령
				진부령 陳富嶺	간성 서 50리	1632년 役僧이 처음 개봉
				선유령 仙遊嶺	간성 정서40리	1574년, 군수 황린이 개봉
				오치령 烏峙嶺	간성 북 30리	오소령
		구령 狗嶺	서 38리 유점사	구령 狗嶺	서 60리 유점사	개간령
				온정령 溫井嶺	고성 서북70리	
				삼치령 插峙嶺	고성 남 90리	삼재령 (삼치령) 인제경계
		앵령 櫻嶺	고성 서 77리			외부재령
		이령 梨嶺	고성 서 72리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고성읍지 간성읍지		비 고
● 하천(河川)						
		북천 北川	간성 북 1리	북천 北川	간성 북 2리	간성 북천
		남천 南川	간성 남 5리	남천 南川	간성 남 5리	간성 남천
		인각천 仁角川	간성 남 50리	인각천 仁角川	간성 남 50리	미시령과 소파령에서 발원 용촌천
		거탄천 巨呑川	간성 북 18리			기진 자산천
		명파천 明波川	열산 북 20리	명파천 明波川	열산 북 20리	
				토성천 土城川	간성 남 30리	소파령에서 발원 문암천
				조항천 鳥項川	백연암에 서 발원	
				사천 蛇川	고성 ↔ 간성 경계	地境, 저진리
		남강 南江	고성 남 3리 金剛山水 站에서	남강 南江	금강산에 서 발원	
● 호·담·포(湖·潭·浦)						
		광호 廣湖	간성 남 45리	광호 廣湖	간성 남 45리, 둘레 10리	수심이 얕고 연이 잘자라고 꽃이 가득히 핀다.
		열산호 烈山湖	열산 동 2리	화진호 花津湖	열산 동 2리	화진포
		선유담 仙遊潭	간성 남 11리	선유담 仙遊潭	간성 남 12리	선유담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고성읍지 간성읍지		비 고
				영랑포 永郎浦	간성 남 55리 둘레 20리	영랑호
				송지포 松池浦	간성 남 20리 둘레 6리	주변 소나무는 조선재와 관창 사 건축재료로 쓰임
		황포 黃浦	간성 남 25리	오리포 梧里浦	松浦 남 5리 둘레 5리	
삼일포 三日浦	고성 동쪽	삼일포 三日浦	고성 북 7리	삼일포 三日浦	고성 북 5리 둘레 10여리	

● 섬(島嶼)

		죽도 竹島	남 20리 둘레 2리	죽도 竹島	간성 남 20리	오호리
		초도 草島	열산 동 6리	초도 草島	화진포 동북	거북섬
		무로도 無路島	청간역 동쪽	무로도 無路島	청간 남 5리	
		지도 猪島	열산 북 30리 箭竹	지도 猪島	열산 북 30리	
				괘도 掛島	죽도 남쪽	백도
		송도 松島	고성 남 23리	송도 松島	고성 남 25리 대강역 남쪽	감호 부근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고성읍지 간성읍지		비 고
● 누정(樓亭)						
만경정 萬景亭	간성 남30리 南濱	만경루 萬景樓	청간역 동쪽	만경대 萬景臺	간성 남 50리	
				청간정 淸澗亭	만경대 남 2리	海門 석벽 '淸澗亭' 양사언 글씨
				능파대 凌波臺	간성 남 20리	
				무진정 無盡亭	능파대 남10리	
				가평대 加平臺	화진포 언덕	
		무송대 茂松臺	열산 북쪽 모래는 鳴砂	무송대 茂松臺	옛 이름 송도	현내면 마차진리
				육송정 六松亭	간성 서 15리	간성읍 해상리 홍예교 부근
				비음정 悲吟亭	선유곡	군수 황린이 선유령을 개통 하고 풀을 만들고 돌에 이름을 새김
		사선정 四仙亭	舞仙石 丹書碑 옆	사선정 四仙亭	고성 북 5리	삼일포
				대호정 帶湖亭	고성 남 2리	
		해산정 海山亭	고성서쪽 동쪽 칠성암	해산정 海山亭	고성 서 1리	군수 차식이 1567 지었음
				망야정 望嶽亭	고성 동쪽	

새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고성읍지 간성읍지		비 고
● 학교(學校)						
		향교 鄕校	간성 북 6리	향교 鄕校	간성 서 5리 驪山	1760 신간이 엿터 동쪽기 슌으로 옮김
		향교 鄕校	고성 서 10리			
● 불우(佛宇) · 사묘(祠廟)						
		건봉사 乾鳳寺	금강산 남쪽	건봉사 乾鳳寺	열산현 금강산 남쪽	거진읍 냉천리
		보현사 普賢寺	천후산	보현사 普賢寺	천후산 폐허	
유점사 楡岾寺	고성 서쪽 금강산내	유점사 楡岾寺	금강산 동쪽 고성에서 60리	유점사 楡岾寺	고성 서 70리 846칸	
		몽천사 夢泉寺	삼일포 북쪽	몽천사 夢泉寺	삼일포 북쪽 33칸	
		발연사 鉢淵寺	금강산	발연사 鉢淵寺	고성 서 30리 57칸	
		사직단 社稷壇	간성 서쪽	사직단 社稷壇	간성 서쪽	
		성왕사 城隍祠	간성 성안 西	성왕사 城隍祠	간성 성안 西	
		여 단 勵壇	간성 북쪽	여 단 勵壇	간성 북쪽	
		사직단 社稷壇	고성 서쪽	사직단 社稷壇	고성 서 2리	
		성왕사 城隍祠	고성 동 2리	성왕사 城隍祠	군정 동 2리	
		여제단 厲祭壇	고성 북쪽	여제단 厲祭壇	고성 북 2리	

해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고성읍지 간성읍지		비 고
● 성(城)						
간성읍성 杆城邑城	石城 536.3m 土城 156.3m	간성읍성 杆城邑城	石城 777.2m 높이 3.9m	간성읍성 杆城邑城	436.3m 높이 4.5m	1591년 재축 동문, 서문 우물 3, 못 4
성산석성 城山石城	간성 2,073m	남산성 南山城	2,778m 石城			금수리 고성산성
		고성산성 固城山城	732.7m 폐지			산학리 고성산성
		마기라고성 麻者羅古城	향로봉			향로봉
		초도고성 草島古城				화진포거북섬
		영파수 寧波戍	열산 북 15리 戍山			현내면 쪽고개
전성산석성 全城山石城	서쪽2리 476.9m 창고13칸	금성 金城	서 8리 금성산 476.3m	전성산성 全城山城	서 8리 476.3m 폐허	고성
		고성읍성 高城邑城	石城 947.2m 높이 1.5m			군수 이수근 1554축조시작 1592 민선이 다시 쌓았다
		성직소성 城直小城	북 36리 415.7m 폐지			
		양진역 북석성 北石城	북 27리 544.2m			온정리 부근
		대강역 서토성 西土城	남 23리 608.4m 폐지			
		성관장성 聲串長城	북 36리 297.5m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고성읍지 간성읍지		비 고
		태가현성 泰穀縣城	양진역 북쪽 1.796척			(24) 2 ●
		안창현성 安昌縣城	대강역 서쪽 28척			
				환가현 泰穀縣	고성 북 27리 폐현	운곡리

● 창고(倉庫)

		열산창 烈山倉	열산			
		청간창 淸澗倉	청간역 북쪽			
		고성읍창 高城邑倉				
		외창 外倉	남쪽			

● 역원(驛院)

청간역 淸澗	옛 이름 靑澗	청간역 淸澗	남 44리 바닷가	청간역 淸澗驛	간성 남쪽	
죽포역 竹苺		죽포역 竹苺	북 10리	죽포역 竹苺驛	북 10리 竹林	거진읍 반암리
운근역 雲根	열산현	운근역 雲根	간성 북 37리	운근역 雲根驛	열산관앞 산모둥이	현내면 산학리
명파역 明波	열산현	명파역 明波	열산 북 20리	명파역 明波驛	명파전 상류	
		사자원 雞子院	간성 서 40리	사자원 雞子院	소곡령 폐지	대간령
		원암역 元岩驛	간성 서남63리 폐지	원암역 元岩驛	간성 서남60리 폐지	토성면 원암리
				진부원 陳富院	진부령 폐지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고성읍지 간성읍지		비 고
대강 大康	안창현	대강역 大康驛	옛 안창현	대강역 大康驛	고성 남 25리	
고잠 高岑		고잠역 高岑驛	고성 남 2리	고잠역 高岑驛	고성 남 5리	
양진 養珍		양진역 養珍驛	옛 환가현	양진역 養珍驛	고성 서 25리	
		탄탄원 炭呑院	고성 남 60리			
		이령원 梨嶺院	고성 서 50리			

● 봉수(烽燧)

죽도산 竹島山	간성 남 15리	죽도봉수 竹島烽燧		죽도산 竹島山	간성 남 20리	17C 봉수· 수졸 철수 죽왕 반야사열
정양산 正陽山		정양산 正陽山	간성 북 15리	정양산 正陽山	간성 북 10리	" 거진읍 반암리
수산 戌山		수산 戌山	열산 북 15리 간성과 50리	수산 戌山	열산 북 15리	" 현내면 쪽고개
포구 浦口	고성 동 10리	포구산 浦口山	남 → 구장천 북 → 영진산			
도을목곶 都乙日串	통천 구들바위 에 올라간다.	영진산 靈津山	북 → 통천 戊申 남 → 포구산			
구장천 仇莊遷		구장천 仇莊遷	고성 남 28리 남 → 열산 戌山			

새 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고성읍지 · 간성읍지
● 성씨(姓氏) : 간성			
간성 土姓 2	宋, 李	宋, 柳, 李, 張, 文 (간성)	宋, 李, 張, 文(간성) 崔, 麻, 皇甫(열산)
亡姓 3	柳, 張, 文		
續姓 11	金, 李(평창) 咸(양근) 尹(영춘) 南(영양) 金(음죽) 全(정선) 張(단양) 安(계천) 孫(평해) 朴(영덕) 모두 鄕吏	金, 李(평창) 咸(양근) 尹(영춘) 南(영양) 金(음죽) 全(정선) 朴(영덕) 鄭(來姓임)	- 신증 - 金(평창, 음죽) 李(평창), 咸(강릉, 양근) 南(영양), 孫(평해) 張(단양), 朴(영덕, 보성) 林(울진), 崔(강릉) 鄭(연일), 尹(파평) 於(연안), 全(정선) 於(연안) → 魚(함악) 金(음죽 → 경주) 崔(열산 → 강릉)
열산 土姓 1	崔	崔, 麻, 皇甫(열산) 金, 全(정선)	黃(평해, 창원), 宋(여산)
亡姓 2	麻, 皇甫	孫(평해) 朴(보성) 林(울진)	高(제주), 池(충주) 徐(이천), 安(순흥) 朴(밀양)
續姓 5	金, 全(정선) 孫(평해) 朴(보성) 林(울진) 全, 孫, 朴, 林 → 향리(鄕吏)		▷ 魚, 尹, 鄭, 崔 : 향만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고성읍지 · 간성읍지
● 성씨(姓氏) : 고성			
고성 土姓 3	柳, 朴, 孟	柳, 朴, 孟(고성)	朴(고령), 權(안동) 崔(강릉), 鄭(연일) 沈(삼척), 尹(파평) 徐(달성), 張(단양, 인동) 許(김해), 金(강릉, 김해) 嚴(영월), 韓(영흥) 全(정선), 黃(평해) 辛(영월), 李(전주, 성주) 趙(풍양), 咸(양근)
망성 亡姓 2	俞, 吳		
續姓 5 속성	劉, 吳, 崔 (강릉) 鄭(구고) 金(양양)	俞, 吳, 劉, 吾(來姓임) 崔(강릉) 鄭(구고) 金(양양)	
안창 人姓 2	李(가은, 천녕) 高(이안)	李(가은, 천녕) 高(이안)	
환가 폐현 3	崔, 朴, 皇甫	崔, 皇甫, 朴	

해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고성읍지 · 간성읍지
● 토산품(土產品) : 간성		
土宜 오곡, 뽕나무, 삼, 배, 닥나무, 왕골 土貢 꿀, 밭(황남), 토끼, 시우쇠, 오배자, 호도, 지초, 느타리, 칠, 여우가죽, 살쾡이가죽, 노루가죽, 어피, 돼지털, 문어, 대구, 송어, 상어, 연어, 전복, 홍합, 전복껍데기, 미역, 조피나무열매 藥材 오미자, 복령, 승점초뿌리(당귀), 바디나물뿌리(전호), 나팔꽃씨, 머자기뿌리, 다시마, 백교향, 대완풀, 산무애뽕, 오징어뼈 土産 가는대, 왕대, 송이 鹽盆이 17 열산은 6	土産 죽전(죽도, 무로도에서 난다), 칠, 오미자, 인삼, 지황, 복령, 송이, 벌꿀, 백화사, 해의, 미역, 복어, 홍합, 문어, 대구, 연어, 송어, 방어, 도루묵, 은어, 황어, 광어, 고등어, 뱀어, 해삼, 하수오	土産 지황, 하수오, 복령, 방풍, 당귀, 승마, 택사, 목방기, 백화사, 죽전, 칠, 송이, 콕, 홍합, 대구, 연어, 방어, 은구어, 황어, 광어, 고도어, 마어, 해삼, 점어, 대합, 순 ※여지승람의 인삼, 복령, 오미자, 봉밀, 해의는 토산품이 아님 魚鹽 문어, 대구어, 송어, 연어, 황어, 광어, 은구어, 은어, 전복, 홍합, 해삼, 전어, 대구어란, 대구어젓, 대구어란해, 연어식해, 홍합식해, 고도어복장, 조과, 분과, 생이 藥材 인삼, 당귀, 오미자, 독활, 만형자, 지실, 방풍, 선각, 시호, 목통, 고루인, 연교, 적복령, 백복령, 백작약, 백편두, 하수우, 강황, 천궁, 모향, 갈화, 목단피, 건간, 인진, 폐피, 천마, 금은화, 마황, 백급, 산약, 복신, 길경, 황백, 공안, 꿀, 들기름, 밀랍 등

새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고성읍지 · 간성읍지
● 토산품(土産品) : 고성		
土宜 오곡, 콩나무, 삼 배, 쌀, 닥나무, 황골 土貢 꿀, 밀(황남), 시우쇠, 오매자, 지초, 느타리, 석이, 바디나물뿌리, 호도, 철, 여우가죽, 살쾅이가죽, 노루가죽, 수달피, 잘, 돼지털, 곰의 털, 대구, 문어, 연어, 상어, 숭어, 홍합, 전복, 전복껍데기, 미역 藥材 인삼, 복령, 승검초뿌리, 바디나물뿌리, 오미자, 나팔꽃씨, 백교향, 대황뿌리, 다시마, 백석영, 오징어뼈	土産 자석, 고석, 수정석, 수란석, 백석영, 오미자, 인삼, 지황, 복령, 송이, 벌꿀, 백화사, 미역, 우뚝가사리, 참가사리, 복어, 해삼, 홍합, 문어, 대구, 연어, 숭어, 방어, 은어, 고등어, 황어, 숭어, 삼치, 넙치, 순채	物産 석정, 인삼, 봉밀, 해삼, 해채, 홍합, 문어, 연어, 고도어, 숭어, 생전복, 은어, 황어, 방어, 오미자, 수정석, 자석, 지황, 복령, 방풍

조선시대 고성·의재의 재해일람

※ 조선왕조실록에서 발췌하였음.

- ◇ 태종 02 [1402. 08. 18]
고성에 황충(蝗蟲)이 발생하였다.
- ◇ 태종 05 [1405. 04. 16]
고성에 비와 눈이 내렸다.
- ◇ 태종 05 [1405. 09. 17]
간성 : 풍재, 수재, 증재로 화곡의 1/2이 손상되었다.
고성 : 풍재, 수재로 화곡의 4/5가 손상되었다.
- ◇ 태종 06 [1406. 04. 13]
간성과 열산(현내면)에 눈이 2자 5치(75.75cm)가 내렸다.
- ◇ 태종 10 [1410. 05. 07]
고성에 우박이 탄환 만한 것이 내려 3일간 녹지 않았다.
- ◇ 태종 12 [1412. 04. 15]
유산국도(울릉도) 사람 백가물 등 12명이 고성 어라진(於羅津)에 정박하였다.
- ◇ 태종 17 [1417. 08. 17]
고성포에 정박한 군선 2척이 표류하는 큰 나무와 충돌하여 파선되어 군인 10명이 익사하였다.
- ◇ 세종 06 [1424. 09. 16]
간성에 폭풍이 불며 비가 내려 벼가 손상을 입었다.
- ◇ 세조 01 [1455. 09. 23]
간성에서 지진이 일어나 해피제를 지냈다.

◇ 성종 05 [1474. 04. 12]
고성, 간성에서 지난해의 흉년으로 백성들이 굶주림에 빠져 곡식을 추가 공급하여 賑救(진구)하였다.

◇ 성종 17 [1486. 07. 13]
고성에 큰비가 내려 민가 29호가 물에 떠내려가거나 물렸고,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다수 발생하였다.

◇ 성종 20 [1489. 02. 08]
고성, 간성에 지진이 일어났다.

◇ 중종 10 [1515. 02. 07]
간성에 지진이 일어났다.

◇ 중종 12 [1517. 04. 01]
간성에 눈이 내렸다.

◇ 중종 14 [1519. 05. 10]
간성에 두 앞다리 아래쪽에 각기 밭 하나씩 더 달린 기형땅아지가 태어났다.

◇ 중종 14 [1519. 06. 12]
고성에 황충이 발생하였다.

◇ 중종 15 [1520. 04. 03]
간성, 고성에 눈이 내렸고, 금강산에는 7촌(21.2cm) 가량 쌓였다.

◇ 중종 15 [1520. 12. 22]
간성에 지진이 일어났다.

◇ 중종 16 [1521. 09. 13]

간성에 지진이 일어났다.

◇ 증종 19 [1524. 04. 04]

고성, 간성에 눈이 내렸다.

◇ 증종 19 [1524. 04. 18]

간성에 우박이 내렸다.

◇ 증종 21 [1526. 03. 25]

간성 9명, 고성 18명이 유행병으로 사망하였다.

◇ 증종 21 [1526. 04. 10]

간성에 우박이 내렸다.

◇ 증종 21 [1526. 06. 16]

간성, 고성에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다수 발생하였다.

◇ 증종 21 [1526. 08. 24]

간성에 눈이 내렸다.

◇ 증종 21 [1526. 12. 29]

간성에 전염병으로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 증종 22 [1527. 04. 09]

간성에 눈이 1촌 8푼(5.5cm)이나 내렸다.

◇ 증종 22 [1527. 04. 14]

간성, 고성에 우박이 내렸다.

◇ 증종 22 [1527. 05. 29]

가뭄으로 간성 오음산에서 기우제를 지제 하도록 하였다.

◇ 증종 22 [1527. 05. 29] 간성에 우박이 내렸다.

◇ 증종 23 [1528. *10. 01] 고성에 천둥이 쳤다.

◇ 증종 24 [1529. 05. 12] 간성에 우박이 내렸다.

◇ 증종 25 [1530. 09. 28] 간성에 서풍이 세차게 불고, 천둥과 번개가 치면서 우박이 내렸다.

◇ 증종 25 [1530. 09. 29] 간성에 눈이 내렸다.

◇ 증종 25 [1530. 10. 10] 간성에 천둥이 쳤다.

◇ 증종 26 [1531. 05. 02] 간성 등에 5주야를 잇달아 큰바람이 불었다. 밀과 보리가 싹만 자란 채 이삭이 맺지 않은 것도 있고 이삭은 맺지만 그대로 말라죽은 것도 있었다.

◇ 증종 26 [1531. 05. 17] 가뭄으로 간성 오음산에서 기우제를 청성을 다해 제사하게 하였다.

◇ 증종 26 [1531. 05. 30] 간성 등지에 두 잠 잔 후에 만환 벌레가 발생하여 곡식에 해를 입혔다.

◇ 증종 26 [1531. 07. 18] 간성 등 고을에 비바람이 크게 불어 곡식이 다

쓰러지고, 가옥이 떠내려가기도 하여 사람과 가축이 역사함

◇ 중종 26 [1531. 08. 27]

고성, 간성에 지진이 일어났다.

◇ 중종 34 [1539. 04. 18]

고성 금강산, 간성에 눈이 5~6촌(15.2 ~ 19.2cm) 가량 내렸다.

◇ 중종 37 [1542. 11. 08]

간성에 흉년으로 실농자가 다수 발생하였다.

◇ 중종 38 [1543. 08. 02]

고성, 간성에 풍재와 수재가 발생하였다.

◇ 명종 01 [1546. 05. 23]

간성, 고성에 개천 물이 출렁일 정도의 지진이 일어났다.

◇ 명종 02 [1547. 04. 19]

고성, 금강산에 눈이 내렸다.

◇ 명종 04 [1549. 06. 29]

고성, 동천, 흙곡에 큰비가 내리고 폭풍이 불어 나무가 뽑혔고, 산골짜기 물이 불어 넘쳐 구릉에 사태가 나서 20여명이 죽고 논밭이 매몰되었으며 곡식이 손상되었다.

◇ 명종 07 [1552. 01. 06]

고성에 천둥이 쳤다.

◇ 명종 09 [1554. 07. 27]

간성에 우박이 내렸다.

◇ 명종 10 [1555. 06. 10]
간성에 누에 만한 벌레가 생겨 곡식을 갉아먹었다.

◇ 명종 10 [1555. 03. 23]
고성의 민 산에 눈이 내렸다.

◇ 명종 10 [1555. 04. 23]
고성에 비가 내렸으며 산 위에는 눈이 내렸다.

◇ 명종 11 [1556. 03. 25]
고성에 지진이 일어나고 금강산에 눈과 우박이 내렸는데 우박의 크기는 큰 콩알만하였다.

◇ 명종 11 [1556. 09. 29]
고성에 눈이 오고 우레가 쳤다.

◇ 명종 12 [1557. 06. 02]
고성, 간성에 검은 벌레가 발생하였는데 크기는 누에 만하고 벼를 갉아먹어 손상시키면서 점점 번성하였다.

◇ 명종 13 [1558. 10. 30]
간성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소리가 천둥치는 것 같았고 집들이 조금 흔들렸다.

◇ 명종 15 [1560. 05. 22]
고성에는 풍발에 검은 벌레가 생겼는데 크기가 손가락만 했다. 뿌리와 줄기를 모두 갉아먹었다.

◇ 명종 17 [1562. 04. 04]
간성, 고성에 서풍이 크게 불어 모래와 돌맹이가 날고 수목이 뽑히고 부러졌으며 지붕의 기와가

모두 날아갔다.

◇ 명종 17 [1562. 06. 11]

간성에 청옥색의 벌레가 발생하여 기장, 피, 콩, 조를 거의 다 먹어 치웠다.

◇ 명종 21 [1566. 05. 29]

간성에 황충이 발생하였는데 황흑색에 누에만한 것이 밭곡식과 초목의 잎을 모두 갉아먹어 산과 들이 모두 벌겍게 되었음, 길에까지 가득 옮겨와 사람들이 차마 밭을 디딜 수 없었으니 근고에 없는 참혹한 변괴였다.

◇ 선조 22 [1589. 07. 03]

간성에 역질로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 선조 29 [1596. 08. 20]

간성에 5월부터 한달 간이나 호리고 비가 내려 화곡이 썩어 주지않았다.

◇ 선조 34 [1601. 07. 03]

고성지역에 3월부터 5월까지 가뭄이 극심하여 서숙(黍粟 : 기장과 조)이 말라죽고 양맥(兩麥 : 보리와 밀)이 누렇게 시들었다. 6월 11일부터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13일 안시(寅時 : 오전 3시에서 5시)에 이르러 우박과 광풍이 북쪽에서 불어와 나무가 뽑히고 모래가 날리며 모맥(牟麥 : 밀과 보리)이 쓰러지고 직숙(稷粟 : 기장과 조)이 꺾였다. 농민들이 밭에서 울부짖는 모습이 보기에 참혹하였다.

◇ 선조 35 [1602. 06. 13]

간성에 누런 안개가 사방에 짙었다.

◇ 선조 36 [1603. 05. 24]

고성에 가뭄이 매우 심하여 논밭이 갈라지고 곡식이 말라 비틀어져 뿌리가 없어졌으며, 지대가 높은 곳에는 모내기도 하지 못하였다.

◇ 선조 37 [1604. 06. 24]

고성 : 부종한 뒤부터 서늘한 바람에 찬비가 내려서리가 내리는 가을처럼 쌀을 하었다.

6. 3에는 크게 뇌성 치며 비가 내렸는데, 황흑색의 미황(飛蝗)이 전답에 두루 깔려 남김없이 다 잡아먹었으므로 며칠동안에 전야가 불타버린 땅과 같이 되니, 노약자들이 하늘을 쳐다보며 울부짖고 있었다.

◇ 선조 38 [1605. 07. 20]

고성, 간성 등 강원도 전역에 큰비로 피해가 컸다. 바다 갈매기가 영서까지 날아갔다.

◇ 선조 38 [1605. 08. 08]

고성, 간성 등에 큰비가 내려 도로가 끊겨 마을과 마을간의 연락이 두절 되었다.

◇ 선조 39 [1606. 03. 15]

진시(辰時 : 오전 7시부터 9시까지)에 고성 등지에 서풍이 크게 불어 기왓장이 모두 날아갔다. 동남풍이 이따금 불기도 하였는데 날마다 크게 불어 모래와 흙이 하늘에 자욱히 날리고 전답이 매몰되는가 하면 곡식의 뿌리가 뽑혀 말라 비틀어지는 바람에 다시는 살아날 가망이 없다. 모두 쓸어버려 농사를 망치고 말았으므로 간신히 살아남은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뜬에 가득하였다. 이런 변고는 근고에 없었던 일이다.

◇ 선조 39 [1606. 05. 18]

간성군 남면에서 20리 되는 죽도 땅 해정 동쪽 큰바다에서 시의충(翅蟻蟲 : 날개 달린 개미)이 파도를 타고 계속 육지로 나와 모래톱에 1마장(1리) 가량 쌓여 모두 말라 죽었다.

◇ 선조 38 [107. 01]

간성에 산사태가 나 죽은 사람과 가축의 숫자를 헤아릴 수 없었으며 관청과 민가가 거의 떠내려가고 깊은 산의 큰 나무들도 뿌리째 뽑혔다.

◇ 광해 01 [1609. 08. 25]

간성군에서는 8월 25일 사시(巳時 :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에 푸른 하늘에 뽕뽕하게 태양이 비치었고 사방에는 한 점의 구름도 없었는데, 우레 소리가 나면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향해 갈 즈음에 사람들이 모두 우러러 보니, 푸른 하늘에서 연기처럼 생긴 것이 두 곳에서 조금씩 나왔습니다. 형체는 햇무리와 같았고 움직이다가 한참만에 멈추었으며, 우레 소리가 마치 북소리처럼 났다.

◇ 인조 05 [1627. 08. 04]

고성 등지에 연일 크게 비바람이 쳐서 초목이 부러지고 산릉이 붕괴되었다.

◇ 인조 05 [1627. 10. 24]

고성에 비바람이 크게 불고 천둥과 번개가 뒤섞여 쳐서 큰 나무가 뽑히고 선박이 파괴되었으며, 떠내려가고 무너진 촌가가 매우 많았다.

◇ 인조 06 [1628. 09. 14]

고성에 크게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려 벼 곡식이 모두 쓰러졌다.

◇ 인조 07 [1629. 08. 12]

간성, 고성에 크게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려 벼가
떠내려갔다.

◇ 인조 09 [1631. 06. 29]

고성에 큰비가 내렸다.

◇ 인조 15 [1637. *04. 23]

고성 등지에 연일 눈이 내렸다.

◇ 인조 16 [1638. 05. 24]

간성군에 황충이 발생하였다.

◇ 인조 24 [1646. 09. 18]

고성 등의 고을에 우박이 내려 벼를 손상하였다.

◇ 인조 25 [1647. 09. 22]

간성군에 며칠 동안 연달아 큰물이 지고 큰바람
이 불어, 벼가 모두 쓰러졌다.

◇ 인조 26 [1648. *03. 24]

고성에 눈이 내렸다.

◇ 효종 06 [1655. 06. 14]

간성군에 홍수가 잼다.

◇ 현종 00 [1659. 08. 19]

간성에 연일 큰비가 내렸는데, 인가가 무너져 켜
러 사망자 수 명 발생하였다.

◇ 현종 01 [1660. 02. 24]

간성에서 23명이 굶어 죽었다.

◇ 현종 02 [1661. 07. 17]

간성군수 권령에게 진휼을 잘 했다는 이유로 말

을 하사하였다.

◇ 현종 04 [1633. 12. 26]

고성에서 여선 21척이 바다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광풍을 만나 15척이 침몰하고 47명이 익사하였다.

◇ 현종 07 [1666. 08. 26]

간성군 백성 13명이 굶어 죽었다.

◇ 현종 11 [1670. 09. 17]

고성 등의 고을에 우박이 내렸고, 이 달 1일에는
금강산의 적설량이 1자(30.3cm)나 되었다.

◇ 현종 13 [1672. 05. 04]

고성군에 눈이 내렸다.

◇ 숙종 13 [1687. 10. 24]

고성 등지에서는 산 속의 물이 갑자기 불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었다.

◇ 숙종 24 [1698. 02. 26]

고성에서는 굶주린 형제가 스스로 서로 잡아먹고
일시에 굶주려 죽었다.

◇ 숙종 27 [1701. 10. 24]

고성 등의 고을에 우박이 쏟아지고 천둥과 번개
가 쳤다.

◇ 숙종 35 [1709. 01. 10]

바닷물이 선달(음력 12월) 초승부터 얼음이 얼었
다. 너비가 50리 가량이나 되고 길이는 고성 북쪽
에서 함경도 경계까지였는데, 이에 이르러서야 비
로소 풀렸다.

◇ 숙종 35 [1709. 07. 21]

간성에는 바닷물이 6월에 얼음이 열었다. 너비가 10여 발(把) 가량이나 되고 종이처럼 두꺼웠다.

◇ 숙종 36 [1710. 04. 10]

간성에 눈이 내렸다.

◇ 숙종 36 [1710. 04. 23]

간성, 고성, 양양, 동천 네 고을에서 동시에 큰불이 났는데 인가를 연소시킨 것이 618호에 이르렀고, 사람과 마소가 많이 타 죽었다.

◇ 영조 01 [1725. 05. 29]

고성에 서리가 내렸다.

◇ 영조 08 [1732. 02. 15]

간성에 지진이 일어났다.

◇ 영조 10 [1734. 04. 11]

간성군에 지진이 일어났다.

◇ 정조 03 [1779. 05. 29]

간성, 고성 등 강원도 기민의 수는 10,847가구이며 전곡은 6,548석이었다.

◇ 정조 08 [1784. 05. 11]

고성, 간성 등 강원도 기민의 수는 25,502가구, 전곡 22,389석이었다.

◇ 정조 11 [1787. 05. 02]

삼정(參政) 문제는 실로 관동의 지탱하기 어려운 폐단인데, 그 중에서도 간성이 가장 심하였다. 계묘년의 큰 흉년이 든 후에 영동의 유민이 아직껏 도로 모여들지 않아서 간성의 경우는 거의 열 집

가운데 아홉 집은 텅 비어 있다. 그런데도 3천 냥의 삼채(參價)를 예전대로 책임 지워 내게 하고 있다.

◇ 정조 11 [1787. 05. 23] 간성, 고성 등 관동의 총 기민의 수는 1,603가구, 전곡은 994석이었다.

◇ 정조 12 [1788. 03. 01] 간성군에 눈이 내렸다.

◇ 정조 16 [1792. 04. 24] 실화로 간성군에서는 민가 161호, 고성군에서는 민가 28호가 불에 탔다.

◇ 정조 16 [1792. *04. 26] 간성에서 화재를 당한 집의 환곡을 3년간 감면해주고 다시 돌아와 사는 백성들에게는 10년간 부역을 면제해주도록 하였다.

◇ 정조 24 [1800. 03. 29] 간성에 화재가 발생하여 수백 호가 연소되었다. 평해군수 권준으로 하여금 실정을 살피고 위로하도록 하였다.

◇ 정조 24 [1800. 04. 07]
: 평해군수 권준이 장계 내용 :
= 간성군 경내 고백진리(광포호 부근) 마을에는 69가구 한꺼번에 불에 탔으며 흩전으로 나누어 지급한 쌀은 29석이다.
= 간성에서 해적 11인과 선격군 77인이 지난해 정월 11일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들어갔다가 갑자기 폭풍을 만나 한꺼번에 침몰하였다. 정월달 추위가 매섭고 거센 바람이 몰아쳤으니 모두 익

사한 것으로 보인다.

◇ 순조 04 [1804. 03. 12]

간성과 고성군 등에서는 이 달 3일 사나운 바람이 크게 일어나 산불이 크게 번져 간성, 고성 등 영동 여섯 고을에서 민가 2,600여 호, 원우 3곳, 사찰 6곳, 창사 1곳, 각종 곡식 600 석, 배 12척, 염분 27좌가 불에 타고 타 죽은 사람이 61명이었다.

◇ 순조 14 [1814. 05. 08]

고성 등 관동의 14읍 교윤의 기민 2만 구에게 곡물 13,764석을 진휼 하였다.

◇ 순조 15 [1815. 02. 30]

20일부터 22일까지 간성군에 눈비가 뒤섞여 내리고 폭풍이 휘몰아쳐서, 경내의 각 나루에 와서 정박 중이던 북판의 곡물을 싣고 온 배 41척과 본도의 곡물을 실은 배 2척을 합쳐 모두 43척이 혹은 뒤집혀 침몰되고 혹은 부서져서, 빠져 죽은 사공이 29명이고 잃어버린 곡물이 20,000여 포가 된다.

◇ 순조 16 [1816. 01. 01]

지난달 10일과 11일의 바람과 눈으로 간성 등 5개 고을 배들이 파괴, 손상, 유실된 것이 254척이고, 민가도 많이 유실, 파괴되었으며 암사자도 40명이나 발새되었다.

◇ 헌종 06 [1840. 08. 17]

간성의 물에 빠져 죽은 사람에게 출전을 내렸다.

◇ 헌종 13 [1847. 03. 11]

간성의 불탄 집에 출전을 내렸다.

◇ 철종 11 [1860. *03. 17]

간성군에 불에 탄 집이 486호나 발생되었다.

◇ 철종 11 [1860. *03. 20]

고성군에 불에 탄 집이 85호가 발생되었다.

◇ 고종 04 [1867. 03. 22]

간성 등 고을에서는 물에 떠내려갔거나 무너진
집과 깔려 죽은 사람이 다수 발생하여 흉전을 배
풀도록 하였다.

◇ 고종 15 [1878. 04. 30]

간성 등 고을의 불탄 집에 흉전을 배풀었다.

◇ 고종 15 [1878. 05. 07]

고성 등 여러 고을의 불탄 집들에 흉전을 배풀었
다.

◇ 고종 28 [1891. 01. 28]

물에 빠져 죽은 간성군 사람들에게 은전을 배풀
었다.

◇ 고종 30 [1893. 10. 28]

고성군에 물에 떠내려갔거나 허물어진 집들과 물
에 빠져 죽은 사람들에게 흉전을 배풀었다.

북 고 성

※ 북고성에 관한 글은 '북강원도 편람' (강원도刊. 1999.11)
중에서 관계 내용을 발췌하여 첨자 정리하였음.

□ 북 고성 개관

북 강원도 남동쪽 끝 동해 연안에 장방형으로 위치하고 있는 북 고성군은 서쪽으로는 금강군, 북서쪽은 동천군, 북동쪽은 동해, 남쪽은 남고성과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다.

동해를 끼고 있는 고성군은 해안선의 길이가 90여 km로서 강원도 내의 시, 군 가운데서 해안선이 가장 길다. 고성 앞바다는 형제섬, 개척섬, 가운데섬, 삼섬, 솔섬 등 28개의 섬과 두포만, 장전만, 영진만 등이 있다. 고성은 원산까지 해안도로가 나있으며 해운 조건도 매우 유리하여 경제와 문화발전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북 고성군의 면적은 859km²로 북 강원도내의 금강군, 세포군 다음으로 큰 면적을 가지고 있다.

원래 고성읍은 남강 하류와 후천(지금의 구읍리) 사이에 있었으나, 포경(捕鯨)으로 유명한 구 장전읍을 고성읍으로 개칭하고 군 소재지로 삼았다.

고성읍에서 원산까지 102km, 평양까지 약 302km이며, 동천까지 50km, 남 고성(간성)까지 62km, 속초까지는 약 88km이다.

○ 북 고성군 행정구역

[1개읍 23개리, 인구 : 102,874명, 면적 : 859km²]

광복 전에는 고성군은 1개 읍, 7개 면, 99개 리로 이루어졌으나, 1945년 광복 당시 38° 선 이북의 고성군은 고성읍, 장전읍과 수동면, 외금강면, 서면의 2개 읍, 3개 면 이었다.

1952년 12월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 고성군의 장전읍, 외금강면, 고성면의 13개 리와 서면의 12개 리, 수동면의 3개 리, 동천군 임남면의 전체리를 합쳐 새로운 고성군을 구성하였다. 당시 고성군은 1개의 읍(고성)과 25개 리로 이루어지고 군청 소재지인 읍은 온정리에 있었다.

1953년 12월 개편 때에는 고성읍을 온정리에서 고래잡이로 이름났던 장전읍으로 옮겨가면서 성북리의 일부와 남평리, 서성리, 조양리, 평해리, 주현리의 일부를 고성읍에 통합하고, 온정리를 다시 내왔다.

1961년 3월 유격리를 월비산리에 통합하고, 1967년 10월 주협리를 고성읍에 편입하고 주협리를 폐지하였다.

군	읍·면	동·리	군	읍·면	동·리
고성군	고성읍	고성	고성군	구읍리(舊邑里)	
		입석리		해금강리(海金剛里)	
		남원리		초구리(草邱里)	
		고봉리		고봉리(高峰里)	
	장천읍	장천리		고성읍(高城邑)	
		성북리		성북리(城北里)	
		성목리		온정리(溫井里)	
	외금강	온정리		종곡리(種谷里)	
		신흥리		해방리(解放里)	
		서아리		운곡리(雲谷里)	
		운곡리		남애리(南涯里)	
		남애리		봉화리(烽火里)	
		계월리		삼일포리(三日浦里)	
		사평리		순학리(順鶴里)	
	서면	송탄리		주둔리(駐屯里)	
		화우리		금천리(金川里)	
		우송리		월비산리(月飛山里)	
	수동면	정월리		복송리(福松里)	
동원군	임남면	복동리		능동리(陵洞里)	
		유동리		두포리(苴浦里)	
		두일리		장포리(長浦里)	
		정령포리		운전리(雲田里)	
		운암		염성리(謙城里)	
		외련성			
		내련성			

○ 교통

동해북부선 철도가 폐쇄된 이후 자동차 교통이 운수체계의 기본을 이루고 있으나, 도로는 군의 서부에 태백산맥의 험준한 산지가 있고, 주민들이 대부분 해안지대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가 적은 편이다.

철도는 1989년 10월부터 안변 ↔ 금강산(고성군 온정리)간 철도 건설을 시작하여 1997년 4월 완공하였다.

1989년 6월 동해안을 따라 원산으로부터 고성읍에 이르는 1급 도로를 확·포장하여 고속도로를 개설하여 금강산 관광의 주 접근로가 되고 있으며, 평양을 출발해 원산과 금강군을 거쳐 고성읍까지 연결되는 큰 육로가 있다. 온정리에서 온정령 867m을 넘어 금강군에 이르는 3급 도로는 금강군, 회양군, 창도군과 연결되며, 온정리에서 원산 ↔ 고성간 고속도로와 연결된다. 또한 고성 ↔ 원산 사이에는 5개 노선의 정기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장전항을 비롯한 항포구가 있어 연안항로로 이용되며, 1987년부터 원산 ↔ 고성 구간의 유람선을 운항하고 있다.

고성군은 해안선이 길고, 바다가 깊으며, 장전만 안에 있는 고성항은 수위 변화가 적고 겨울에도 얼지 않는 등 양호한 항만조건을 가지고 있고, 목재, 석탄, 수산물 등 연간 약 5만 톤의 화물을 처리한다.

고성군이 자랑하는 국내 최대, 최고 관광자원인 금강산 개발과 함께 교통사정이 급속히 호전될 전망이다.

[고성항] 고성항(옛 장전항)은 예로부터 금강산으로 가는 바다 쪽 관문으로 금강산의 봉우리들이 눈에 들어오는 항구이다. 고성항은 지형적으로 동해안에서 니진, 흥남, 원산과 더불어 만을 확보하고 있는 항구 중의 하나로, 항구의 지형이 항아리 모양으로 생겨 동해안의 큰 파도를 막아 주는 천혜의 항구조건을 갖춰 일찍부터 어촌이 형성되었으며, 동해안 고래잡이의 근거지로 유명했다.

지형적 이점으로 해일이 일거나 태풍이 불어도 선박들이 피해를 보지 않으며, 항구 주변에 농경지가 거의 없어 바다로 유입되는 토사가 거의 없다. 따라서 수심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등 양항의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 고성항은 금강산 입구인 온정리까지는 7.5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현재 남한 주민 및 외국인의 금강산 관광을 위한 관광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시설과 설비가 진행중이다.(자료:북한대사전, 북한연구소 1999)

○ 주민생활

고성군의 1996년 현재 인구는 103,000명으로 추산되며, 주민들은 주로 노동자와 협동농민이다.

고성군에는 금강산 관광과 관련하여 금강산휴양소를 비롯한 휴양지가 많아 이 부문에 종사하는 주민이 많으며, 군내에는 도서관과 학생도서관이 있으며, 온정리에는 1,500석을 가진 '금강산 야외 영화관'이 건설되었다.

특히 '98년부터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어, 온정리의 1,600평 부지 위에 금강산 온정리 공연장과 휴게소가 '99년에 건립되었으며, '금강산 문화회관'으로 이름 붙여진 공연장은 620석 규모이며, '온정리 가게'로 이름 붙여진 휴게소는 금강산 관광객들에게 북한 상품을 팔고 있다.

○ 교육기관

계	대학교	고등전문학교	고등중학교	인민학교	탁아소	유치원
174		1(농업)	15	22	69	67

○ 의료시설

계	군 인민병원	리 인민병원	리 진료소	요양소	산업 진료소	보양소
29	1(200병상)	7	21			

□ 자 연

○ 지형지세

고성군의 대부분 지역이 산악지대를 이루고 있는 만큼 군 넓이의 87%를 산림면적이 차지하고 있다. 북서부에서 발달해 내려오는 백두대

간은 금강군과의 서쪽 경계를 이루며 대간의 분수령에는 금강산 최고봉인 비로봉 1,638m을 비롯하여 월출봉 1,574m, 자일봉 1,528m, 국사봉 1,384m, 집선봉 1,351m, 무산 1,391m, 오봉산 1,260m, 매산 1,230m, 선창산 1,226m 등 해발 1,000m 이상의 높은 봉우리가 솟아 있으며, 동서를 잇는 온정령 857m, 외무재령 1,219m 등 높은 고개가 있다.

지형의 일반적 특징은 백두대간의 분수령으로부터 동쪽으로 가면서 계단형으로 급격히 지세가 낮아지고 주로 절벽과 급경사지가 많아, 관음폭과 구룡폭포를 비롯한 많은 폭포가 걸쳐 있는 깊은 협곡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지형적 특징으로 동해로 흘러 드는 신계천, 온정천, 남강, 금강천, 동금강천 등 하천들도 상류에서는 심한 급류를 이루고 있으며, 하구의 해안에 이르러서는 좁은 충적평야를 형성하고 있다.

남강 하구에는 규모가 작은 삼각주와 선상지가 잘 발달되어 작은 평야를 이룬다. 평지는 남강이나 신계천을 비롯한 하천의 하구부근에 분포하고 있다. 이는 대체로 외금강지역으로 동해 해안충적평야와 인접하고 있으므로 지형의 상대적 높이가 크고 수백 미터 높이의 절벽이 이르는 곳마다 펼쳐져 있다.

긴 해안선을 끼고 있는 고성군은 다양한 해안지형이 발달되어 있는데, 특히 고성만, 장아대단, 수월단 등이 있어 해안지형이 복잡하다. 곳곳에 다양한 규모의 해식해안이 발달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는 길이가 수십 또는 수백m, 높이가 3~35m되는 해식애도 있다. 일부에서는 사주, 즉 모래 둑이 얇은 만의 입구를 막아 석호를 형성하는데 삼일포, 영광호, 감호 등이 대표적이며, 이 가운데 삼일포가 제일 크고 아름다운 호수 경치를 이루고 있으며, 호수 안에는 삼섬, 솔섬 등 규모가 작은 섬들이 있다. 고성 앞바다에는 형제섬, 개점섬, 가운데섬 등 28개의 작은 섬들이 있으며, 만으로는 두포만, 장천만, 영진만 등이 있다. 해금강은 삼일포와 해만물상 등 해안저산지형 위에 놓여 있으나 기암 절벽이 호수, 바다와 조화되어 절승경계를 이루고 있다.

금강산이 주로 자리잡고 있는 곳은 고성군 일대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관광명소가 있는 곳으로 온정리, 삼일포리, 해금강리, 운천리, 봉화리, 고봉리 등을 꼽는다.

금강산을 크게 지역별로 나누면 외금강, 내금강, 해금강으로 구분되

는데, 외금강과 해금강지역은 주로 고성군에, 내금강 지역은 금강군에 그리고 총석정 해변은 동천군에 속한다.

○ 지질·토양

고성군에는 혼성암, 편마암과 교대화강암, 그리고 염기성 관입체와 화산암군의 산성화강암 등이 분포되어 있는 혼성암, 편마암, 화강암 지대로 산림갈색토양, 산림적갈색토양과 산림담갈색토양, 충적지 토양이 있다.

토양의 분포는 수평적 차이와 수직적 띠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아 따뜻하고 누기가 많은 외금강의 해발 300m 아래지역에는 산림갈색토양이 퍼져 있다. 300~600m 사이의 지대에는 산림담갈색토양이 퍼져있다. 그 위로 1,200m까지 사이의 혼성림지대에는 산림암갈색토양이 덮여 있다. 산림갈색토양은 전체 토양면적의 54%를 차지하며, 저지대의 산림적갈색토양은 35%를 차지한다. 충적지토양은 강 하류지역과 바닷가에 분포, 전체 토양면적의 9%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안 평야지대의 논은 대부분 충적지이다.

금강산 1,500m 이상의 비로봉 정상부근에는 고산멸기나무숲에서 발달한 고산습초원토양이 일부 분포되어 있다.

주요 지하자원은 금, 은(용계-금천지구), 중석(천불동, 북동, 두포), 니켈(월비산리, 보현동), 티탄, 지르코늄, 석류석(구읍리, 삼일포리, 장포리, 종곡리, 해방리), 물리브덴(금강산지구), 니탄(종곡, 봉하, 해방, 삼일포, 구읍, 순학지구), 수정, 황옥(성북, 온정, 봉화지구) 등이 있다.

○ 하천, 호수

고성군의 하천은 백두대간 동쪽사면에서 시작하여 동해로 흘러드는 여러 개의 강이 있다. 백두대간 줄기가 해안 가까이까지 뻗어 있어 하천들은 대부분 길이가 짧고 유역면적이 작으며, 유량의 변동이 심하고 유속이 빠른 것이 특징이다.

군에는 고성 남강, 염성천, 외호천, 운전천, 선창천, 천불천, 온정천,

등이 있다.

남강은 차일봉에서 시작하여 남쪽으로 흐르다가 군의 남쪽 경계에서 다시 북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흐르는데 이 강은 국사봉과 남 고성 향로봉산맥의 지류와 고성 신계천에서 합류하여 동해로 유입된다. (길이 : 85.5km, 유역면적 : 689.2km²).

신계천은 비로봉과 가는골 고개에서 시작되어 옥녀봉을 사이에 두고 두갈래로 흐르는데 그 남쪽 갈래는 아홉소골, 상팔담, 구룡연, 무봉포 등 여러 개의 소와 폭포를 이루면서 흘러 옥류동을 지나 북쪽 갈래와 합쳐서 신계사 앞을 지나간다.

온정천은 오봉산, 세지봉, 문주봉, 수정봉과 상등봉, 관음련봉 사이에서 만상계, 세지계 등 여러 개의 시냇물을 모아 흐른다. 옥화암 부근에서는 한하계로 불리우다가 금강온천을 지나면서 온정천이 된다. 온정천은 신계천을 받아들여 동쪽으로 흘러가다가 구읍리 북쪽 삼일포 남쪽에 이르러 고성 후천(북강)으로 되어 바다로 들어간다.

천불천은 오봉산 북쪽 기슭에서 두 갈래로 흐르다가 합쳐 바다로 들어가며 선창천은 선창산 동남 기슭에서 시작하여 북동쪽으로 흐르면서 선창구역을 지난다.

군에는 삼일포를 비롯하여 4개의 자연호수와 2개의 관개용 저수지가 있다. 삼일포는 석호로서 강동포라고도 하는데, 1932년 남강의 물과 금천리 계선에서 온정천의 물을 끌어들이고 남동쪽에 제방을 쌓아 수위를 높여 담수화 하였다.

인공저수지로는 물골저수지와 흑연저수지가 있다.

○ 남강

금강산의 남부에 있는 안무재령에서 시작하여 고성군 해삼대와 남강마을을 지나 동해에 흘러 드는 강으로, 적벽강이라고도 한다. 길이 85.5km, 유역면적 689.2km², 유역의 평균너비 약 8km, 강바닥의 산수평균 물매 15.2%, 하천망의 밀도 0.661km/km²이다.

강바닥의 물살은 상류부에서 급하며, 하류부에서는 대단히 느리다.

지류는 온정천, 보현천, 등 10여 개이다. 집수구역에서는 전나무, 참

나무, 이팝나무, 잣나무, 소나무 등이 울창하게 자라고 있어 물받이 조건이 좋다. 연평균 강수량은 1,300 - 1,600mm로 강수조건도 좋아서 강수량이 많다. 하류부에서는 퇴적작용이 활발하다.

본래 남강은 삼일포리를 지나는 후천(북강)으로 흐르고 지금의 하상은 자그마한 강줄기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강물의 깎임 작용에 의하여 오늘의 물길에 생겼다.

금강산의 동부지역을 따라 흐르는 남강 일대에는 만물상과 구룡폭포, 십이폭포, 삼일포를 비롯한 외금강, 해금강의 수많은 명승지들이 있어 아름다운 절경이 펼쳐져 있다.

남강에는 송어, 은어, 연어, 붕어 등이 많다. 남강은 관개용수로 활용된다.

○ 기후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는 해양성기후가 지배적으로 비교적 온난한 편이다. 또한 백두대간의 높은 봉우리에서는 겨울에 대륙성 기후의 특성이 나타나 백두대간이 겨울철의 차가운 서북풍을 차단하고 있고 편현상으로 춥지 않다.

연평균 기온은 11.2℃이며 1월은 -1.7℃, 8월은 23.3℃이다. 금강산 일대는 비가 많이 내린다. 고성군의 연평균 강수량은 1,600.2mm (관측기간 : 1942~1981)로, 특히 고성군 온정리 일대는 최다우지이다. 비가 내리는 일수는 7~8월이 가장 많으며 외금강, 해금강 지역에서는 특히 8월 하순에서 9월 상순까지 폭우가 내린다. 1936년 8월 병자년 포락에는 고성읍내에서만 130명이 사망하였고, 1954년 9월 13일 하루에 463.1mm의 폭우가 내렸으며 1964년에는 1년에 2,419.1mm의 비가 내렸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비가 내린 실례이다.

대간의 동쪽사면의 해안지방은 가끔 폭설이 내리기도 한다. 적설량은 2m 이상에 이르는 때도 있다. 바람의 연평균 풍속은 3.0~3.5%로 겨울철에 바람의 세기가 세지만, 선파람은 봄에 더 자주 분다. 특이한 것은 봄과 가을철에 '금강내기' '내기바람'이라는 무덥고 상당히 건조한 강풍이 부는데, 바람속도가 40%에 달하기도 하며, 군내에서 금강내기

가 더 자주 나타나는 지역은 온정리~고성읍을 중심으로 하는 구읍리로부터 남해리 사이이다.

고성을 비롯한 금강산 일대는 맑은 날씨보다는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씨가 더 많으며 특히 높은 지대에서는 하늘이 맑았다가는 갑자기 안개구름이 떠돈다. 이러한 잦은 기후변화가 금강산의 모습을 시시각각으로 변하게 하여 산악과 계곡, 바다의 아름다움을 한층 더 돋보여 준다.

[음향내기] 금강산 동쪽 사면 고성군과 동천군에는 '금강내기' 또는 '내기바람'이라 부르는 특이한 바람이 거의 매년 봄과 가을에 분다. 서북 산간 지방에서 바다 쪽으로 불어 내리는데 이 역시 편 현상의 영향이라고 한다. 이 고온 건조한 강풍은 중국 동북지방에 있는 저기압에서 서남방향으로 뻗어 있는 한랭전선과 황해 남부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일어난다. 이 강풍의 영향으로 다년생 나무들은 평균 2m 이상 자라지 못하고 한쪽으로 기울어져 누운 상태를 보이기도 한다.

※북고성 기후 현황

구분	기온(℃)			연평균 강수량(mm)	무상기일	
	1월	8월	연평균		첫서리	끝서리
고성군	-1.7	23.3	11.2	1,600.2	10월 25일	3월 31일
동천군	-2.4	23.7	11.0	1,211.9	10월 하순	4월 초순
금강군	-8.0	20.8	8.0	1,140.2	10월 5일	5월 13일

○ 식생

고성군은 북한 식물분포구에서 온대남북에 속하며, 남북으로 길게 놓인 해안선 일대에는 소나무 단순림과 다복솔 숲이 분포한다.

바닷가의 사빈과 사구에는 해당화, 나문재, 남가새, 갯방풍 등이 자생하고 있으며, 바닷가의 낮은 산지에는 소나무 단순림과 소나무~참나무의 혼합림이 분포되어 있다.

고성 남부지방은 남부와 북부계통의 식물 등이 교차하며, 수종이 풍부하다.

금강산은 지형이 천태만상으로 복잡하고 수직고도가 다양하므로 식물의 분포에서도 특징적인 것이 많다. 금강산에는 약 750종의 고등식물이 분포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서 꽃피는 식물만 하여도 714종이나 되며, 특히 도라지과에 속하는 진귀한 특산식물인 '금강초롱'과 조팝나무과에 속하는 '금강인가목(금강국수나무)', 그리고 봉래포리풀, 참바위취, 나래사초, 그늘돌쩌귀, 땅따지꽃, 용가피나무(선봉피나무) 등 17종의 특산식물이 있다.

소나무, 잣나무, 전나무, 벚나무, 단풍나무, 목련 등이 많은데 소나무는 낮은 지대에서 단순림을 이루며, 잣나무는 내금강에서 숲을 이루고 있으며, 활엽수림 가운데는 신갈나무가 가장 많이 분포한다. 또한 금강산은 바다의 영향과 지형적인 차이로 식물분포도 뚜렷한 지역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금강산 동쪽 사면인 외금강 일대에는 갈참나무, 굴참나무, 상수리나무, 졸참나무, 떡갈나무 등 참나무속의 수종들과 일부 남부계통 식물들이 분포한다. 금강산 자연보호구는 5,000여ha나 되며, 삼일포리와 순화리 일대에는 수백 정보의 인공림을 조성(소나무, 호두나무, 참대)하였다고 한다.

바닷가와 근해에는 털게, 사게, 해삼, 성게, 명게(흑우러성이), 밥조개 등과 황어, 송어 등 물고기들이 많다.

남강과 염성천을 비롯한 여러 개의 강이 있으나 흐름이 짧고 경사가 급하여 민물고기는 다양하지 못하나, 송어 등 강을 거슬러 오르는 물고기와 잉어, 붕어, 미유기(산메기), 칠성장어 등이 분포하며, 남천 수계에는 특산종인 등점버들지와 금강모치가 퍼져 살고 있다.

군의 서부의 깊고 험한 산지에는 동물상이 비교적 다양하다.

금강산에 서식하는 양서류, 파충류 가운데 도롱뇽, 발톱도롱뇽, 참개구리, 미끈도마뱀, 아루르장지뱀(긴꼬리도마뱀), 줄장지뱀(흰줄도마뱀), 실뱀, 까치살모사, 남생이 등이 분포하는데, 그중 최근 거의 전멸되다시피 한 남생이가 드물게 분포되어 있어 외금강 남생이 서식지(북한에서는 '남생이 살이터'라고 함)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조류 가운데 고니, 큰기러기(쇠큰기러기), 쇠오리(되강오리), 가창오

리(태극오리), 발구지, 바다꿩을 비롯한 오리기러기류가 철새로서 오가며, 새매, 말뚝가리(저팔이), 들꿩, 꿩, 재갈매기, 양비둘기(굴비둘기), 삿꾸기, 소쩍새(점동새), 수리부엉이, 물총새(물족새), 호반새 등 희귀한 새들이 분포되어 있고, 둥고비, 쇠박새, 때까치(개구마리), 노랑 눈썹새, 큰유리새를 비롯한 백여종의 새들이 서식한다.

짐승류 가운데는 고슴도치, 두더지, 청서, 작은따쥐, 따쥐, 관박쥐(주름코박쥐), 긴수염박쥐(우수염박쥐), 하늘다람쥐(날다람쥐), 청서, 들쥐, 밭쥐 등 작은 짐승류와 여우, 너구리, 오소리, 산달, 수달, 삵 등 모피수(털가죽짐승)들이 많이 분포한다.

□ 산 업

반농반어의 산업구조를 가진 고성군은 축산업과 과수재배, 잠업 등도 발달했다. 군에는 2개의 수산사업소(고성읍, 두포리)와 3개의 수산협동조합(종곡리, 장전향, 남애리)이 있으며 거의 모든 협동농장에 수산작업반과 수산분조가 조직돼 있다.

고성에는 강원도 참대밭의 약 67%가 있다. 이 참대를 이용해 만든 고급 참대의자, 참대꽃바구니, 부채, 남짓대 등을 비롯해 여러 가지 참대 제품을 생산하여 평양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 보내 주고 있다. 이외에도 지팡이, 물조리, 바구니, 삼태기 등의 공예품 및 일용품을 만들어 금강산 관광객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 농업

북 고성군은 산림이 87%로 경지면적이 북 강원도내에서 가장 적다. 12개의 협동농장을 중심으로 반농반어업의 형태로 곡물 생산을 중심으로 하면서, 축산업과 과수재배, 잠업 등도 발전하고 있다.

고성군의 경지는 밭이 적고 논이 많으며, 경작지의 지역적 차이가 비교적 심해 바닷가 지대가 군 경지의 약 50%가 분포하고 있으며, 참대밭이 많이 있다.

농업생산은 곡물의 생산이 약 70%이며, 채소류는 18%에 불과하다.

곡물 중에는 벼가 69%, 옥수수 25%로 벼가 훨씬 많고, 맥류와 수수도 약간 경작되고 있다. 주된 농산물은 벼, 옥수수, 콩, 보리, 호밀, 수수, 감자, 고구마, 들깨, 유채 등이고, 배추, 무, 오이, 고추 등 채소와 담배, 박하, 들깨 등도 경작되고 있다.

남강벌 등 하천유역에 일부 비옥한 땅이 있으며, 주요 관개시설로는 저수지 3개소(삼일포, 물골, 흑연), 양수장 64개소, 기타 관개시설로는 수로 207km, 관개구조물 760개, 관정 232개소가 있다.

밭농사와 함께 과수재배, 가축사육이 이루어지며, 참대공예품이 특산물로 알려져 있다.

벼는 삼일포리, 봉화리, 염성리 등 남강연안에서 주로 재배되며, 옥수수는 순화리, 염성리를 비롯한 바닷가와 산간지대에서 많이 재배된다.

능동리에 있는 국영과수농장에서는 배, 사과, 복숭아, 감 등이 주로 생산된다. 특히 감은 도 전체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배는 크고 맛이 좋아 예로부터 널리 알려져 있다.

가축은 소, 돼지, 닭, 오리, 토끼 등을 사육하는데, 주요 축산시설로는 고성닭공장과 오리종축장이 있다.

※ 북 고성군의 경지면적 비율

산림면적 비율(%)	경지면적 비율(%)	경지면적 구성비율(%)			
		논	밭	과수원	팽밭
87	7.0	39.2	34.6	21.8	1.8

○ 수산업

바닷가에서는 어민들이 풍부한 바다자원을 이용하여 수산업을 발전시켜왔다. 난류와 한류가 서로 만나는 해금강부근 앞바다에는 고대로부터 이미 이름난 어장으로 되어 있었다. 조선시대 명산물로 이르던 것은 송어, 송어, 연어, 방어, 대구, 고등어, 문어, 낙지, 전복 등이었으며 고래, 멍에, 물개 같은 바다 짐승들도 잡았다.

19세기 말에 와서는 설어기가 되면 밤에 어선들의 등불 빛이 심리에

만점이라고 할 정도로 바다를 꽉 메우고 있는 것이 장관을 이루고 특이한 정서를 자아냈다. 금강산의 동쪽에는 수많은 하천과 호수들이 있어서 여기서도 적지 않은 물고기들을 잡았다. 물고기 잡이에서 특색이 있는 것은 해금강에서의 숭어잡이였다. 여기서는 숭어가 등이 물 길변에 거의 다 나타나게 회유하는 습성을 포착하여 바위 위에서 작살을 멀리 던져서 그것을 잡았는데 노련한 어민들은 실수가 없었다고 한다.

인근 해안의 수온은 겨울철에 낮아 1, 2월에 0.2~3.9℃이고, 8월에 가장 높아 23.8~24.7에 이르며, 특히 원산에서는 1월 하순에서 2월 상순에 걸쳐 평균수온이 영하로 된다.

고성군은 긴 해안선을 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류와 난류가 합치는 지역으로 어족이 풍부하다. 또한, 장전만, 두포만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만입이 발달되어 있어 천연적인 어항과 포구가 많은 북한의 주요 수산기지중의 하나로, 수산업이 고성군 전 산업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발달하였다.

수산사업소와 수산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수산업, 양식업이 활발하며, 명태가 주로 많이 잡힌다.

이 밖에 오징어, 정어리, 청어, 고등어, 꽁치, 문어 등과 미역, 다시마, 조개, 대합, 굴 등 해산물이 있다. 특히 문어와 섬조개, 털게는 이 고장의 명산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고성 앞바다에는 100여 정보의 바다양식장이 있어 미역, 다시마, 조개류(특히 대합, 전복, 섬조개 등)을 주로 양식한다.

※ 어류 어획시기

어류명	어획시기	어류명	어획시기	어류명	어획시기
명 태	11~2월	멸 치	4~11월	가자미	1~12월
정어리	5~10월	상치어	5~10월	이면수	3~6월
까나리	5~6월	청 어	12~5월	방 어	9~11월
꽁 치	5~7월	도루묵	11~12월	문 어	1~12월

○ 공업

북 강원도 전체에서 차지하는 고성군의 공업비중은 약 3.4%로서 타 지역에 비해 낙후하였으나, 이 지역에 많이 있는 참대와 임산자원, 수산자원 등이 지역의 원료에 바탕을 둔 수산업, 선박업은 발달하였다.

기계공업은 주로 수산업과 농촌 경제를 위한 생산부문으로, 선박수리공장과 농기계작업소, 농기계공장, 기계수리공장 등이 있다. 이 밖에 식료공장, 직물공장, 일용품공장 등이 있다.

※ 고성군 주요 공장현황

조업년대	주요공장
1946~1950	고성수산사업소, 양곡가공공장, 장전직물생산협동조합, 고성소철공생산협동조합, 장전수산협동조합, 두포수산협동조합, 영진수산협동조합
1951~1960	직조공장, 장공장, 피복공장, 가구공장, 농기구공장, 남애수산협동조합, 공예품생산협동조합
1961~1970	두포수산사업소, 잠수사업소, 기계수리공장, 맹인공장, 종곡수산협동조합, 과자공장
1971~1980	영역군인일용품공장, 모피공장, 여자옷공장, 물고기가루생산공장, 선박수리공장, 식료공장, 독공장, 종이공장, 제약공장
1981년 이후	양어사업소, 화학공장, 다시마사업소

□ 명 승

○ 용천

남애리에 위치하고 있다. 백두대간의 한 지맥이 바다 쪽으로 뻗어나가면서 해안 절벽을 이루고 있다. 해안에 거대한 바위언덕이 자리잡고 있어 해안을 따라 통행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해안 절벽을 따라 간

실히 만들어진 바위길을 따라 사람이 다니다. 향아리(독)처럼 생긴 바위라 하여 독구미(독굽이) 또는 웅천 이라 부른다. 고려말 일본 해적들을 이곳 낭떠러지에서 섬멸하면서 유명해진 곳이다.

○ 수원단

고성군 해금강리의 동쪽에 있는 단, 남강어구의 왼쪽 연안에서 북쪽으로 약 3km 떨어진 곳에 있다.

제일 높은 곳은 62m, 평균높이 약 30m 정도의 낮은 단이나, 바닷가가 벼랑으로 되어 있으며, 특이하게 솟 나와 있어 항해자들의 좋은 표지물이 된다.

수원단에서 남쪽으로 이름난 명승지 해금강이 펼쳐져 있다.

○ 장아대단

고성군 해방리의 북부에서 동해로 뻗어 나간 육지의 끝. 고성만의 동쪽 기슭에 잇닿아 있다.

주요 기반암은 화강암이다.

위에서는 푸른 소나무들이 자라고 북쪽 앞바다에는 기묘한 바위섬(마암섬)이 가까이 있어 장아대단의 자연경치는 뛰어나게 아름답다.

앞바다에는 가자미, 이면수, 문어, 해삼, 미역, 다시마 등이 많다. 단면두리에는 문어, 해삼, 양식장이 있다.

○ 해중삼도

남해리 해안을 따라 송도(남술섬), 문도, 개침도가 남북으로 자리잡고 있다. 숲이 무성하며 아름답다. 금강산 북부 지역인 선창산에서 바라보인다. 이곳에서 남쪽으로 장선만 입구에 작은 바위섬인 형세도가 있다. 근처수역에는 난류, 한류 어족이 모여들어 명태, 오징어, 정어리, 청어가 많이 잡힌다.

○ 원호고개

고성군 온정리의 중부에 있는 고개, 명승지 금강산 관음련봉이 남부에 있다. 높이 200m. 본래 극락재 또는 극락고개로 불리웠다.

○ 해금강

해안선의 기암, 바위섬으로 이루어진 구역이다. 오랜 세월 바위산이 비바람에 켜져 무수한 바위섬과 기암을 만들었다. 청정구역이며 주위에는 미역, 다시마, 조개, 문어, 해삼 등 각종 어류가 살고 있어 노천수족관이나 다름없다. 바다 쪽으로 더 나아가면 청정한 바닷물에 서식하는 해조류, 물고기를 배를 타고 볼 수 있는 구역이 있는데 이 수역을 해저금강이라 한다. 해금강은 수원단에서 남쪽으로 휴전선 근처까지 이르는 수역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송도, 입석, 사공암, 현종암, 선암, 옥교암 등이 있다.

○ 삼일포

관동팔경의 하나로 유명하며 일찍이 통일신라 시대부터 세상에 알려진 명소이다. 화랑들이 잦았고 수많은 시인 묵객, 여행자들이 들르는 곳이었다. 석호인 삼일포는 수질이 양호하고 주위에 송림이 있고 동해에 가까워 관광자원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호반에 식당, 전망대가 있고 호수에서 보트놀이를 할 수 있다. 이곳에 관광 개발을 착수할 계획이며 호텔, 위락시설이 들어설 전망이다.

○ 영랑호

예로부터 삼일포, 감호와 더불어 금강산 동부지역을 대표하는 자연호수이다. 동해안에 면해있는 이 석호는 물길을 통해 바다와 연결되어 수질이 양호하다. 서북쪽 내륙으로 바람이 불어 자라잡고 있으며 주위에 송림이 있다.

○ 감호

휴전선 안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이 불가능하다. 북쪽으로 월비산, 구선봉, 서쪽으로 351고지가 있다. 동쪽으로는 지세가 평탄하며 모래사장이 있다. 호수 모양이 거울을 닮고, 거울처럼 맑다고 하여 감호라고 부른다. 동해와 물길로 연결되어 있어 개발을 한다면 호수와 바다를 연결한 수상 레크레이션이 가능하다. 호수와 바다 사이에 2km에 걸쳐 펼쳐진 백사장은 사질이 뛰어나 옛날에는 명사(鳴砂, 明砂)라고 불렸다. 조선시대 시인 양사언이 이곳에 머물면서 풍류를 즐기던 비래정과 어룡정이 있었다.

○ 적벽

남강 하구에 있는 적벽산의 강변 절벽이다. 푸른 남강물에 비치는 모습은 계절마다 다르다. 바위 절벽이 붉은 색을 띠고 있다고 하여 적벽이라 부른다.

○ 금강산 온천

일찍이 외금강온천이라고 불리던 곳으로 고성군 온정리에서 만물상 쪽으로 약 500m 떨어진 대로변에 자리 잡고 있는 광물질 회박규토, 라돈 샘이다. 북한의 천연기념물 지리부문 226호이다.

기후는 내륙의 산립기후이면서 해변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온천은 흑운모 화강암의 틈을 따라 37 - 44℃의 물이 매일 800m³씩 솟아나오며, 여러 곳에서 솟아난다.

광물질 총량은 154.84mg/ℓ이다. 이온성분들로서 칼륨, 나트륨이온이 21.61mg/ℓ, 메탄규산은 62.29mg/ℓ 들어있다. 이 밖에 라돈이 566.10-3/s.cm 들어있다.

이 온천은 비결핵성만성관절염, 관절증, 신경통, 신경염, 심경근염, 여러 가지 원인의 다친 상처 및 수술 뒤 남은 증세, 고혈압병(1, 2기), 부인성비만성질병, 살갓병 등의 치료에 쓴다.

○ 금강산 자연보호구

금강산 일대를 포괄하고 있는 자연보호구, 비교적 따뜻하고 비가 많이 내리므로 식물자원과 동물자원이 많다.

보호구에는 키나무, 떨기나무, 덩굴식물, 풀식물을 비롯한 1,000여종의 식물이 있다.

1속 1종의 금강국수나무와 금강조롱을 비롯하여 만리화, 금강불맞이, 봉래꼬리풀, 금강분취, 그늘분취, 선등말굴레, 그늘 돌쩌귀, 웅기피나무, 신갈매나무 등 20여 가지의 특산식물이 있다.

자연지리적 조건과 생활환경이 유리하여, 금강산 일대에는 땃새지, 산양, 노루, 사향노루, 곰, 수달, 고슴도치, 청서 등 30여종의 산짐승류와 알락할미새, 피꼬리, 밀화부리, 뺨꾸기, 칼새, 딱따구리 등 100여종의 새들과, 여러 종의 파충류, 양서류, 물고기들이 살고 있다.

이 보호구에서는 산림, 풀식물, 산열매, 소나무숲을 비롯한 이로운 식물자원과 특산식물들을 특별히 보호 관리하며, 사향노루, 산양, 노루, 청서 등 이로운 짐승과 새들을 보호하고 있다.

○ 삼일포리 고분군

삼일포리 고분군은 고성군 삼일포리에 있으며, 북한의 사적 58호이다.

이 곳에 있는 무덤의 수는 여러 개 있는데, 그중 2호 무덤은 양옆 판석의 길이가 2.55m, 높이는 1m, 어간너비는 70cm다.

1963년에 발굴된 2개의 무덤은 내부가 석상분으로 되어있고, 무덤에서는 유골과 금제 귀걸이, 관에 박았던 쇠못과 관 고리 등 유물이 나왔으며, 유물들은 원산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 천연기념물(북한)

경상북도 (1)

○ 식물부문

415	고성 참대밭	고성군	1982. 12 지정. 고성 일대는 기후가 온화하고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이라 재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1959. 3 순학리와 삼일포리에 56그루를 심어 조성한 고성 참대밭을 모체로 고성군에서는 약 3km ² 의 참대밭을 조성하였다. 여기서 나는 참대를 이용하여 고급 참대 의자, 참대 꽃바구니, 함, 부채, 낚싯대 등 여러 가지 참대 제품을 생산한다.
-----	-----------	-----	--

○ 동물부문

230	남생이 살이터	금천리	동부아시아 특산종인 남생이 서식
-----	------------	-----	-------------------

○ 지리부문

216	금천선대	온정리	높이 936m, 금강산의 절경 만물상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천연적인 전망대와 같은 봉우리
217	금강산 달알바위	온정리	바위가 달걀처럼 생겨 달알바위라고 함, 화강암이 오랜 세우려 비바람에 깎이고 씻겨서 타원형의 달걀모양을 이룬 기암
218	삼일포	삼일포리	넓이 0.79km ² , 둘레 45km, 평균수심 9-13m
219	삼팔담	온정리	금강산 8천년 전설이 깃든 폭포
220	삼선암	온정리	금강산의 절경 만물상의 지키는 초별 같이 날창같은 바위 3개가 가지런히 서있는 바위 봉우리
222	비봉폭포	온정리	높이 31m에 지나지 않으나, 폭은 20m에 달하여 마치 한줄기의 강이 그대로 쏟아지는 듯한 장관을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임
223	십이폭포	온정리	폭포 총 높이는 289m, 폭은 4m로 금강산에서 제일 높은 폭포, 다단계폭포로서 폭포 맞은 편에 있는 은선대에 올라가 보면 하늘에서 내린 흰무지개와 같은 전경을 볼 수 있다 하여 은선대 폭포라고도 함
224	귀면암	온정리	바위봉우리고서 그 모양이 하도 험상궂고 심술이 사납게 생겼다하여 지은 기암, 삼선암 곁에 나란히 서있음

○ 지리부문

225	구룡폭포 (중항)	온정리	설악산의 대승폭포, 개성 박연폭포와 더불어 3대 명폭포중의 하나이다. 폭포의 높이는 74m, 폭은 4m이다. 폭포수가 떨어지는 곳에는 큰 돌절구 모양의 구룡연이 있고, 폭포 위에는 상팔담이 있음
226	금강산 온천		방사능을 띤 라돈천, 수온 37~44℃
227	금강수정		금강산의 수정, 수정봉 인근에서 생산된다.
228	해금강 솔섬	해금강리	높이 50m, 온통 바윗돌로 뒤덮여 있는 곳에 소나무가 자라남
229	해금강문	해금강리	화강암으로 된 자그마한 바위섬으로 두 개의 큰 화강암 기둥 위에 하나의 바위가 지붕처럼 가로 놓여 있어 바다 위에 있는 대문과 같이 기묘한 생김새를 이룸
417	연주담	온정리	폭포, 담소, 계곡이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운 풍치가 있다.
418	옥류동		금강산 계곡중 대표적인 명소임
419	토끼바위		토끼 모양의 자연석
420	매바위		화강암이 침식되어 매 모양을 이룬 것

《참 고 문 헌》

- 고성군읍지 [고성문화원, 1995]
 고성군읍지 [고성문화원, 1996]
 국역 건봉사의 역사적 발자취 [고성문화원, 2001]
 지명유래지 [고성문화원, 1998]
 고성군지 [고성군, 1986 / 1998]
 양주지 [양양군, 1990]
 인제군사 [인제군, 1996]
 고구려 · 백제 · 신라의 언어연구 [김수경, 평양출판사, 1989]
 이규태의 개화백경 1 [이규태, 조선일보사, 2000]
 금강산의 역사와 문화 [사화과학원역사연구소,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4]
 고구려제국사 [서병국, 도서출판 해안, 1997]
 고구려의 그 앞면 수레는 다 어디로 갔을까 [김용만, 바다출판사, 1999]
 한눈에 보는 우리민속 오천년 [김은하, 웅진출판사, 1999]
 한국사대사전 [이행순, 교육출판공사, 1981]
 금강산은 부른다 [월간조선부 단행본팀, 조선일보사, 2001]
 원역 국사대사전 [이흥직, 대영출판사, 1977]
 검재를 따라가는 금강산 여행 [최완수, (주)대원사, 1999]
 금강산 길라잡이 [김경웅, 집문당, 1999]
 한민족 대백과사전 [정신문화원, 1996]
 신증동국여지승람 [이행, 숲, 1996]
 택리지 [이중환, 한양, 1996]
 국역 조선왕조실록 CD-ROM [동방미디어, 1997]
 미리 가보는 금강산관광 [현대지도문화사, 1998]
 한국사이야기 1~4 [이이화, 한길사, 1998]
 (계간) 사상 여음호 [사회과학원, 1990]
 이야기한국사 [태음출판사, 1994]
 한국상고사이야기 [고동영, 한부리, 1998]
 조선상고사 [신채호, 일신서적출판사, 1998]
 파스칼 대백과사전 [동서문화, 2000]
 금강산 [전영률, 손영종외, 실천문학, 1989]
 북 강원도 편람 [강원도, 1999]
 태백 형전사 [김영기, 강원일보사, 1986]
 사명대사 [권상로, 이화문화출판사, 1995]
 역사신문 1~6 [(주)사계절출판사, 1996]

지은이

차주문(車周文)

1961년 간성에서 출생

고성고등학교 졸업

현, 거진소방파출소 근무

고성문화원 향토사료조사연구위원

우리 '고성군은
유구한 민족의 역사와 전통문화가
서려 있는 자랑스러운 애국충의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의 고장입니다.

만화<고개골>의 고성이야기

인 쇄 : 2003년 4월 25일

발 행 : 2003년 4월 30일

편저자 : 車 周 汶

발행인 : 李 炳 燦

편집인 : 南 炳 旭

발행처 : 高 城 文 化 院

전화 : 033-681-2922

팩스 : 033-681-2928

인 쇄 : 책과 마음 출판사

전화 : (02-2277-0762)

이 책은 국비와 고성군의 보조금으로
발간되었으므로 무료로 배부하는 책입니다.

